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310·538·3333 samsungmoving.com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March 26, 2015 Vol. 476

보치엘레스티는 이번 콘서트의 수익금을 윌셔연합감리교회 찬양국을 통해 연합감리교회 말라리아 퇴치 사역에 전달했다.

아프리카 말라리아 퇴치 위해

한인 음악인들 UMC에 수익금 기부

한인 음악인들이 아프리카의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목소리를 모았다. 보치엘레스티는 지난 21일 윌셔연합감리교회에서 연 제3회 콘서트에서 나온 모든 수익금을 연합감리교회(UMC)가 추진하는 "말라리아 없는 세상 만들기(Imagine No Malaria)" 캠페인에 기부했다.

UMC는 2010년 4월 25일 세계 말라리아의 날에, 2015년까지 7천5백만 달러를 모금한다는 목표로 이 캠페인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모금액은 6천5백만 달러. 통계상 아프리카에서는 60초 당 한 명이 말라리아로 생명을 잃고 있다. 모기의 번식을 막기 위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나 각종 의약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수이지만 사실 모기장 하나만 있어도 말라리아 퇴치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그동안 UMC는 230만 개의 모기장을 보급하고 300곳 이상의 진료소, 1만1600명의 직원들을 통해 말라리아와 싸워 왔다.

보치엘레스티는 남가주 지역 한인 전문 음악인들로 구성돼 있다. 소프라노 독고정화, 안주영, 알토 원순일, 정현주, 테너 양두석, 오위영, 베이스 채홍석, 장상근, 피아노 김경미 등이 활동 중이다. 이날 콘서트에는 영 엔젤스 콰이어도 특별 출연해 말라리아 퇴치에 힘을 보탰다.

김준형 기자

남가주 지역 부활절 연합 예배

남가주 지역 한인교회들이 부활절 연합예배를 4월 5일 새벽 일제히 드린다.

LA 지역은 남가주교협 주최로 풍성한교회에서 새벽 5시 30분에 예배 드린다. 설교는 류당열 목사가 한다. 오렌지카운티 지역은 OC교협과 OC목사회 주최로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새벽 5시 15분에 드리며 한기홍 목사가 설교한다. 헌금은 전액 타민족을 위한 사랑의 라면 기금으로 사용된다.

이 외에도 동부 지역은 아름다운 교회, 중부 지역은 감사한인교회, 사우스베이 지역은 남가주샬롬교회, 샌퍼난도밸리 지역은 은혜와평강교회, 인랜드 지역은 인랜드온누리교회, 샌버나디노지역은창대교회에서 각각 새벽 5시 30분에 예배 드린다.

벤추라카운티 지역은 새벽 6시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샌디에고는 새벽 5시에 북부 지역은 팔로마한인교회, 남부는 샌디에고사랑의교회에서 각각 예배를 드린다.

한기부 미주지부 대표회장 취임식에 참석한 교계 지도자들이 손을 맞잡고 한국과 미국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에 다시 한번 부흥 필요해"

한기부 미주지부 대표회장에 지용덕 목사 취임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한기부)의 미주지부 대표회장에 지용덕 목사(미주양곡교회)가 취임했다. 46년 전 창립돼 한국교회의 순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한기부는 현재 미주에서도 워싱턴DC와 LA 등지에 지부를 두고 있다.

24일 미주양곡교회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이취임식에서 참석자들은 한국과 미국의 신앙적 위기에 대해 큰 위기감을 드러냈다. 특히 이들은 미국교회의 동성결혼 문제, 한국교회의 신뢰도 하락 등을 지적하며 한기부가 본연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감당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영식 한국 대표회장은 "미주지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창대하게 일어날 것"이라 기대했다. 지용덕 미주 대표회장은 "부족한 제게 큰 일을 맡겨 주심에 감사와 부담이 있다. 오직 예수를 중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행사는 남가주한인기독교원로목사회 월례회를 겸해 개최됐으며 노재룡 원로목사회장, 이태환 전 회장, 강영창 차기회장 및 여러 회원들, 김병용 미주복음주의장로교

지용덕 목사

총회장, 김기동 OC교협회장, 백지영 남가주목사회장, 고재원 연세대동문목사회장, 변영익 한인커뮤니티 단체장협의회 대표의장, 류당열 교협 증경회장단 회장, 한기형 감독 등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또 최영식 대표회장 외에 송일현 증경대표회장과 김희복 미주본부장, 현종각 워싱턴본부장 등 한기부 인사들도 참석했다.

김준형 기자

이동원 목사의 강해설교를 배우자

미드웨스턴침례신학교가 지구촌교회 원로 이동원 목사를 초청해 강해설교 강의를 연다. 이 강의는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남가주 지역 재학생을 대상으로 열리며 특별히 16일에는 모든 이들에게 개방된다.

미드웨스턴은 과거부터 이동원 목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교내 채플의 이름도 그의 영문 이름을 따서 Daniel Dongwon Lee Chapel로 정한 바 있다.

공개 강의는 4월 16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얼바인침례교회(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에서 열린다. 강의 후에는 학교 설명회와 점심 식사 시간이 마련된다.

이 학교는 남침례회(SBC) 산하 6대 신학교 중 하나로 M.Div. MTS, MATS, D.Min., D.Ed.Min. Ph.D. 등 다양한 한국어 학위 과정을 제공한다. 특히 석사 학위들은 100% 온라인 수업만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어 본교가 있는 미주리 주 캔사스 시티 외에 전세계 어디서든지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문의) 816-414-3754

조정민 기자

나라정비 나라오토덴트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타이어 대리점 GOODYEAR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해외한인 장로회 세계성경장로교회
World Bible Presbyterian Church
교회설립 28주년
장로 임직 감사예배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본 교회가 다음과 같이 장로 임직식을 거행코자 하오니
참석하셔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한인신

전성대

유영민

• 설교자 : 임종혁목사 (KPCA 서노회장)
• 일 시 : 2015년 4월 5일 (부활주일) 오후5시
• 장 소 : 세계성경장로교회 본당 (WBPC)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 연락처 : Tel. (424) 257-8169 / Cell. (562) 397-2121
초청인 담임 강신권 목사
준비 위원장 김성전 장로
홍만애 장로

흑인 남편과 한인 아내가 목회하는 다세대 · 다민족 교회

"성령 안에서 장벽 없어… 전세대 · 다문화로 초점을"

리빙호프크리스천센터 벤자민 로빈슨 목사 인터뷰

리빙호프크리스천센터에서 시무하는 벤자민과 선희 로빈슨 부부

한인교회 내에는 1세와 2세 간에 다양한 갈등이 존재한다. 언어, 사고방식 등 '문화적 차이'에 더해 '세대 차이'까지 더해지면서 '생긴 것만 비슷하지 완전히 다른 존재'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나마 한인교회 내에서는 외모라도 비슷하지만, 아예 외모도 다른 다민족이 다세대로 섞여서 한 교회를 다닌다면 어떨까? 일대 혼란이 일어날까? 그런 교회는 존재가 불가능할까?

벤자민 이스라엘 로빈슨(Benjamin Israel Robinson) 목사는 2003년 캘리포니아 에머리빌에 은사주의 교회인 리빙호프크리스천센터(Living Hope Christian Center)를 개척해 리드 목사(Lead Pastor)로 시무하고 있다. 이 교회는 다민족 다세대 성도 300여 명으로 구성된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로빈슨 목사는 아내와 공동으로 사역하고 있다. 아내의 이름은 선희 손 로빈슨(Sunhee Son Robinson)이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로빈슨 사모는 한인 2세다. 둘 다 풀러신학교를 졸업했다.

흑인 남편과 한인 아내가 다민족과 다세대를 아우르는 목회를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미국 내에서도 주목을 받으며 각종 컨퍼런스에 강사로 초대받고 있다. 최근에는 한인 2세 대학생들의 집회인 하이어 콜링에서도 메시지를 전한 바 있으며 오는 4월 10일-11일 은혜한인교회와 4월 24일-25일 충현선교교회에서 열리는 아바 컨퍼런스(Abba Conference)에도 강사로 초대됐다.

먼저 세대 간의 차이에 관해 로빈슨 목사는 "우리 교회가 세대 간 고립을 방지하는 방법은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세대마다 주신 무엇인가가 있다고 믿는다. 그 어떤 세대도 그 전 세대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들을 의지하지 않고는 성숙해질 수 없다. 그리고 이전 세대는 이후 세대에게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세대적(multi-generational)이 아닌 전세대적(trans-generational, 傳世代的) 목회를 제안했다. 단순히 노년-중장년-청년-청소년-유년 등의 성도가 있다면 다세대이겠지만 이 세대들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면 이것은 전세대적이라 볼 수 있다. 즉,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무엇인가가 전수되는 것이다.

"청년 세대가 장년 세대와 친밀해지는 방법은 많아요. 가장 쉬운 것은 청년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장년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새 전자레인지 사용법도 가르쳐 줄 수 있지요. 청년들이 장년들을 도울 일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반대로 장년이나 노년 세대는 청년들에게 삶의 경험과 이야기를 들려주고 지혜를 나눠줄 의무가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는 할 말이 많았다. 일단 그는 성령의 임재를 답으로 꼽았다. 은사주의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하는 것만은 아니다. 경험했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설교 통역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제 설교를 이해하고 있음에 놀랍니다. 얼마 전, 저와 아내는 우리 교회에 1년 반 이상 출석한 한 한인 가정을 심방했습니다. 그들은 영어에 그다지 능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가 '어떻게 설교를 이해하시나요'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가정의 부인께서는 '참 신기하죠. 설교를 들을 때에는 더 잘 이해가 되어요. 가끔 이해를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느낍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현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어떤 문화적 차이도 극복이 됩니다."

그는 이 대목에서 중요한 개념을 소개했다. "다민족(multi-ethnic)이 출석한다고 다문화적(multi-cultural)인 것은 아니다." 그는 많 설명했다.

은 미국 교회들이 다민족으로 구성돼 있지만 그 중 어떤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문화적(mono-cultural)이라 지적했다. 교회의 주를 이루는 하나의 문화가 있어서 모든 멤버들이 어떤 식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백인, 흑인, 동양인이 함께 예배드리지만 성도의 다수가 백인이라면 교회의 백인적 문화를 모든 성도들이 따라간다는 것이다.

로빈슨 목사는 "우리는 교회 내의 다양한 문화를 존중한다. 어떤 문화, 어떤 배경에 속한 사람이라도 환영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 다수를 이룬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다.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진정 그들 자신이길 바란다. 우리는 중남미나 아프리카에서 온 이민자들도 자신들의 문화를 즐기길 원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끝으로 그는 문화적, 세대적 갈등에 처한 한인교회 2세 목회자들에게 조언했다.

"잘 견디세요. 상황은 좋아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저는 대학생 때 한인교회를 접해 봤고 목회를 하는 한인 친구들도 많기에 이 문제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한인 2세 교회는 아직 초창기이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이 문제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지만 이것은 한인교회만이 아니라 서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해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겐 선생님은 있을지 몰라도 영적 아버지는 없습니다. 누구도 헌신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 '나는 너희와 함께 걸으며 내 삶을 나눌 거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윤형 · 김준형 기자

"4.29의 아픔 통해 본 우리의 미래" 에세이 콘테스트

1992년 로스앤젤레스 4.29 폭동을 기리면서, 한인사회에 큰 아픔을 가져다 준 이 사건을 통해 현재를 살피고 미래를 꿈꾸는 에세이 콘테스트가 열린다. 한미연합회(KAC)가 매년 개최하는 4.29 에세이 콘테스트는 한인 청소년, 대학생들이 한인 이민사의 한 아픔을 공유하면서 자신들이 만들어 가야 할 한인사회의 미래에 관해 책임감을 심어주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해에는 "미주한인 개척자 3인의 유산"이라는 주제 아래 수잔 쿠디 여사, 김영옥 대령, 새미 리 박사를 주제로 한 콘테스트가 열린 바 있다. 올해의 주제는 "The Past & The Future" 즉 과거와 미래다. 한미연합회 측은 "역사가 E. H. Carr는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한다. 자신이 E. H. Carr와 같은 역사관을 소유한 역사가라고 가정하고, 자신이 선택한 사실과 자료들을 가지고 LA 폭동에 대해 서술하라. 자신의 현재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온 과정과 자신의 미래 커뮤니티가 형성될 과정에 폭동이 준 영향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혀 서술하되 자신만의 방식으로 과거와의 대화를 공유해 달라"고 주제를 제시했다.

이 콘테스트에 응모하려면, 고등학생의 경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하고 대학생의 경우 미국 내에 학부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에세이는 최소 750에서 최대 1000단어로 작성하면 되며 모든 수상자들은 4월 25일 오후 3시 LA 한인회관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직접 혹은 대리로 참석해 장학금을 수령해야 한다. 장학금은 총 3천800달러가 지급될 예정이다.

에세이는 4월 12일 오후 11시 59분까지 event@kacla.org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에세이 작성 규정은 213-365-5999나 david@kacla.org로 문의하면 된다.

기독문학 아카데미 2015 봄학기 개강

시, 소설, 수필, 희곡 등 글쓰기를 연구하는 기독문학 아카데미에서 2015 봄학기를 개강한다.

|| 오렌지 아카데미: 개강일시-3월 25일(수) 오전 10시/장소-미주장신대(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90670/문의)714-883-1328 /714-226-0703

|| LA 아카데미: 개강일시: 3월 26일(목) 오전 10시/장소-제일침례교회(760 S. Westmoreland Ave., LA CA90005)/문의)714-883-1328

이 행사에서는 벤추라교역자협의회 소속 목사 부부들이 특별 찬양을 불렀다.

"믿음의 본 되는 교회 되자"

벤추라감리교회 제4대 담임에 김민영 목사 취임

김민영 담임목사가 취임 서약을 하고 있다.

남가주 벤추라 지역에 있는 벤추라감리교회가 창립 21주년을 기념해 3월 22일 주일 오후 5시에 제4대 김민영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드렸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연회 관계자와 벤추라감리교회 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예배와 2부 취임예식이 진행됐다.

지성은 목사(새생명교회)의 사회로 열린 1부 예배에서는 박민규 목사(벤추라카운티교회협의회 회장)의 기도와 임마누엘성가대의 특송에 이어 한기형 목사가 살전1:2-7을 본문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한 목사는 "벤추라감리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되라"고 말했다.

격려사를 전한 조창오 목사(남가주지방 원로목사)는 "벤추라감리교회가 좋은 목사를 맞이했다. 화평케 하는 역사를 써 가라"고 말했다. 오정택 목사(웨스트레이크한인교회)는 "벤추라감리교회는 활기가 넘치고 살아있는 교회"라며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비전으로 비상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축사를 전했다. 한편, 이 예배에서는 벤추라교역자협의회 소속 목사 부부들이 특별찬양을 해 교회 연합의 모범을 보였다.

소감을 전한 김민영 목사는 "많은 분들의 기도와 격려로 부족한 자가 이 자리에 섰다"며 "벤추라감리교회가 부흥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목사는 한국에서 감리교신학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덕생교회, 화현교회, 안양교회에서 목회한 후, 미국으로 이민하여 벤추라감리교회에서 부교역자(2003년 10월~2005년 4월)로 섬기다가 알라바마 주 몽고메리에서 제일감리교회를 개척하여 9년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을 경험한 바 있다. 조정민 기자

두 교단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MOU에 서명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한인 교단-멕시코 교단 선교 MOU

미국예수교장로회(GAPCA)와 멕시코 포스퀘어 교단(The Four-square)이 교단 간의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MOU를 맺었다. 두 교단은 3월 18일 멕시코 티화나 소재 로사리도 호텔에서 이 협약을 맺었으며 향후 공동으로 목사를 안수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며 양국의 기독교 교류 증진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미국예수교장로회의 총회장 최 아브라함 목사와 포스퀘어 교단의 대표 마리아 아라셀리 몬테사 목사가 직접 참석해 서명했다.

소망 소사이어티가 차드 유치원 후원을 위한 모임을 열였다. ⓒ소망

큰 교회만 단기선교? 연합하면 할 수 있다!

중남미선교회 연합단기선교 세미나

중남미선교회 명예회장 임수택 목사가 이번 단기선교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오는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중남미선교회 주최로 이뤄지는 니카라과 연합단기선교를 소개하는 세미나가 23일 생명찬교회에서 열렸다. 이 단체는 지난 11년간 16회에 걸쳐 중남미 지역에서 여러 교회가 연합한 가운데 단기선교를 펼쳤다.

이 세미나에서는 지난 단기선교에 관한 홍보 동영상을 시청한 후, 5명의 강사가 연합단기선교 사역의 유익과 사역 내용, 이를 위한 훈련, 재정 관리 등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이 세미나에서 고승록 목사(토론토 참좋은복된교회)는 "단기선교의 가장 큰 어려움은 시간과 물질적 제약이다. 그러나 중남미 지역은 이런 면에서 타 지역보다 선교에 참여하기 유리하다. 교회가 연합할 경우, 작은 교회도 다양한 사역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감당하면서 신앙이 성숙되고 선교지향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7개 교회, 70명을 중남미로 파송했으며 올해는 20개 교회, 100명을 파송하겠다는 기도제목을 품고 있다. 문의) 곽부환 목사(213-321-4433) 유국희 기자

우물 238개, 유치원 3곳… 아프리카 변화의 시작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 아프리카 차드에 238개의 우물을 파고 유치원 3곳을 개원한 박근선 지부장이 감사를 전했다. 박 지부장은 소망 소사이어티, 굿네이버스와 함께 아프리카 생명 살리기 사역의 일환으로 238개의 우물을 파서 20만여 명에게 맑은 식수를 공급했다. 또 3곳의 유치원을 설립해 어린이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식수를 얻기 위해 여성과 어린이들이 먼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일과의 오랜 시간을 식수 확보에 사용해야 하는 형편이다. 따라서 우물이 마을 내에 하나 생기는 것은 단순히 물이 아니라 시간과 안전을 포함하는 일이 된다. 이제 물을 길러 다니지 않아도 되기에 시간이 남는 어린이들을 위해 소망 소사이어티는 유치원을 개원해 교육을 하고 있다.

18일 소망 소사이어티를 방문한 박 지부장은 후원자들에게 우물과 유치원 사역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감사를 전했다. 박 지부장은 2001년부터 사역하며 겪은 어려움을 전함과 동시에 우물 하나가 지역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간증했다. 이날 소망 소사이어티는 박 지부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차드에서 우물과 유치원 프로젝트를 펼치기로 약속하고 인증서를 전달했다.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친절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믿을 수 있는 농협 한삼인
창고대방출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1-866-902-8282
www.korginseng.com
LA 지역: 3130 W Olympic Blvd #120 LA CA 90006 T.323.737.8888
출력된지역: 170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3 T.213.453.6624 (아리랑마켓입구)
100%홍삼농축액
100g 소비자가격 $90
2개 구입시 $160 $150
3개 구입시 $270 $180
4개 구입시 $360 $230
240g 소비자가격 $185
2개 구입시 $370 $320
3개 구입시 $555 $450
홍삼순액
30포 $120
60포 $240 $180
90포 $360 $255
120포 $480 $320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Tel: 323-735-3000 Fax : 323-735-3111 Website:scalckc org
Email: koreanchurch981@gmail.com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2015 부활절 연합새벽예배
2015년 4월 5일 오전 5시 30분
LA 풍성한교회
2911 Beverly Boulevard, Los Angeles, CA 9005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 여승훈 목사의 묵상칼럼

기독교는 장사가 아니다

여 승 훈 목사
복음주의 칼럼니스트

2주전 필자는 장인 어른 장례식 참석차 아주 오랫만에 한국을 방문하였다. 며칠 잠시 머무는 동안, 피곤한 몸을 좀 풀고자 그 옛날의 대중 목욕탕을 찾았다. 그런데 대중 목욕탕이라는 그 옛날의 간판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대중 목욕탕을 모두 없애 버린 줄 알았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 보았더니 사우나를 알려 주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동네 이곳 저곳을 찾아 보니 여기 저기 어렵지 않게 사우나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었다. 과거 대중 목욕탕과 비교했을 때 내부 시설이나 서비스가 너무나 발전되어 있었다. 모든 시설들이 모두 다 철저하게 소비자들을 위하여 갖추어져 있었다.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을 더욱 만족하게 할까를 놓고 각 사우나마다 경쟁하는 분위기가 어렵지 않게 감지되었다. 오직 소비자들의 편리함을 위하여, 오직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위하여, 오직 소비자들의 편안함을 위하여 모든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 같았다. 철저하게 소비자 중심이었다.

이것이 "장사"다. 현대 장사 기술에 관한 책 중에 베스트셀러로 널리 알려진 "장사의 시대"란 책이 있다. 이 책의 저자는 하버드 MBA 출신의 저널리스트 필립 델브스 브러턴이란 사람이다. 그는 그의 글 가운데서 누가 잘 팔고 그들이 어떻게 파는지를 알고 싶어서 넓은 세상을 여행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다. 누가 잘 팔고 그가 어떻게 파는가. 이것이 소비자 중심의 현대 사회의 핵심 사안이다.

누가 잘 팔고 어떤 방법으로 파는가 하는 소비자 중심의 문화는 현대 기독교 안에도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소비자가 왕이라는 소비자 중심의 백화점 경영 방식이 적지 않은 현대 기독교 지도자들이 추구하는 교회 운영 방식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물론 소비자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장사를 한다는 것은 그 또한 모순이다.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에서 신자들의 무리 즉 회중이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이 장사와 기독교의 차이점이다. 그런데 기독교가 장사의 원리를 모방하려 한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다. 기독교가 장사의 원리를 모방하려는 시도가 결국 기독교 스스로 천박해지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무엇인가 붐이 일고 부풀려지긴 하는 것 같은데 질적인 면에서는 점점 더 저급해져 간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 사회에서는 기독교를 정상적으로 기독교라 부르지 않고 "개독교"라는 말로 부르는 현상이다.

개독교의 간단한 의미는 "개같은 기독교"라는 말이다. 기독교에 대한 어원 풀이를 보면 기독은 그리스도에 대한 한자 음역이다. 즉 기독교라 함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교라 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 회자되고 있는 "개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2000년전에 십자가 상에서 받았던 모욕을 또 다시 받게 하는 끔찍한 죄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차이점이라면 과거 2000년 전에는 유대인 무리들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모욕을 받았다면, 오늘날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모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회중에 대한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은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회중들은 대체적으로 지도자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장사 원리와 백화점식 경영 방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회중들도 역시 그렇게 기독교를 이해할 것이다.

우리 이민 교회가 왜 이럴까? 이런 탄식 섞인 소리를 듣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왜 이럴까?'를 더 직선적으로 표현한다면 '왜 이렇게 저급해져 갈까?'라고 할 수 있다. 사람 중심의 신학, 사람 중심의 설교, 사람 중심의 목회, 사람 중심의 경영이 결국 거룩하고도 숭고한 기독교를 저급하게 전락하도록 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중심의 마인드가 장착이 된 회중 중심의 기독교, 이것은 성경이 지지하는 견해가 아니다. 설교자의 메시지가 회중들의 취향에 맞추고 회중들의 기분을 고조시켜 주는 데 맞추어져 있다면, 냉정하게 말해서 기독교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기독교 장사에 물든 기독교 회중들에 대하여 유태인 독일계 미국인 사회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 "만일 하늘 나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감히 표현하라고 한다면 현대인은 세상에서 제일 큰 백화점과 같은 모습을 묘사할지 모른다." 현대인들의 이런 선호도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절대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핵심은 회중들에게 모든 것이 술술 풀리는 형통하고 멋진 세상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6-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데 고난이 왜 필요한가? 이유는 기독교의 핵심은 회중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으뜸은 회중을 만족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으뜸은 회중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회중이 걷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길이다.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영광을 위하여 요청되는 것이 거룩한 고난이다. 만약 당신이 여호와의 영광과 거룩한 고난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 본다면 그 자체가 저급해져 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교를 개독교로 전락시키는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 복음은 회중들의 삶을 멋지게 만들기 위하여 파는 상품이 아니라 영원한 죄의 형벌로부터 죄인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복음임을 명심하자.

1주년 기념행사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맨 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송정명 총장, 수잔 정 박사, 김화자 상담소장

한인기독교상담소 1주년 학술세미나

17일 월드미션대학교 부설 한인기독교상담소는 개원 1주년을 맞이해 후원행사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외부 상담소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월드미션대학교 송정명 총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상담소 소개, 연간 활동 보고, 상담자·내담자 소감, DMH 프로그램 소개, 후원 감사패 증정, 및 축하공연 순으로 1부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2부에는 'ADHD와 우울증 이해를 위한 두뇌 기전'이라는 주제로 수잔 정 박사의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문의) 213-738-6930, info@kaccla.net

남가주순복음교회가 창립 8주년을 맞이해 감사예배를 드렸다. 주요 식순자들이 기념촬영했다.

남가주순복음교회 창립 8주년 맞이

지난 22일 오후 4시 남가주순복음교회가 창립 8주년을 맞이해 감사예배를 드렸다.

예배에서는 박재만 담임목사가 사회를 맡았고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면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또 영 김 주하원의원, 윤우경 집사(OC평신도연합회장)가 축사, 김기동 목사(OC교협회장)가 권면을 했다.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도 축하영상을 보내왔다. 축도는 이영규 목사(순복음북미총회 증경총회장)가 했다.

진유철 목사는 설교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은 한계를 뛰어넘는 사역이었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우리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격려했다.

축사를 전한 김기동 목사도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기둥으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소현 기자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회복의 기쁨을

스바냐 3:14-20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개인이나 국가나 어느 집단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실 때에 그 대상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면 그들을 가장 소망적이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본보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분에 넘치도록 받아 누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심리가 둔해지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즉 죽은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육신과 정신, 경제적인 환란과 시련을 겪게 하심으로 견디기 어려워서라도 죽지 못해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태했던 믿음을 바로세우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도 합니다.

1. 죄와 심판

스바냐서는 하나님이 섬기신다는 뜻의 스바냐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기록한 말씀인데 예루살렘과 유대나라가 100년 전에 망한 북쪽 이스라엘이 앗시리아에게 BC722년도부터 완전히 멸망해버린 것을 보면서도 그들이 각성 분발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하나님은 100년이나 참고 기다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사마리아를 수도로 했고 남쪽은 유대국이라는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했습니다. 이 형제나라가 때로는 싸우는 일도 있으나 북쪽이나 남쪽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매를 맞거나 환란이나 고통에 시달리는 모습을 남은 다른 한 나라가 각성 분발하는 재료거리로 제시하는 일들도 있어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의 남아 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습 1:2-6)" 이 말씀은 이 세상 끝 날에 불신대상은 완전히 전멸시킬 것에 대한 경고적 예언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스바냐 3장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3:1에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학한 그 성읍이 화 있을찐저"에서 포악한 그 성읍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이란 뜻은 평화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늘의 평안을 보장받았던 예루살렘이 폭군들에 의해서 패역하고 성읍이 온갖 죄악으로 차고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남의 이야기처럼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도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믿음 없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3절에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 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이리요" 방백들은 교회로 말하면 장로를 말함이고 부르짖는 사자는 위협을 주어 강탈하려는 자를 의미합니다.

2. 회개와 회복의 기쁨

어느 교회가 개척을 해서 11년이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그간 140여명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 열심인 두 사람이 있었는데 A라는 사람은 대학교수로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신앙인격이 하늘소망을 바라고 목자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교회 은혜 분위기 조성에 숨은 봉사자로 힘쓰고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는 자기가 힘껏 애씀에도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그 교회 목자의 목회에 큰 힘을 실어주는 아주 인격적인 분이었다고 합니다. 또 B라는 다른 한 분은 사업이 잘 되어 돈은 많이 벌었으나 항상 말을 할 때도 자기 생각으로 말을 하고 자기의 생각이 저지된다고 생각하면 조금 위협적인 태도로 변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시샘이 나서 그 올림픽의 분위기를 냉각시키고 해방하려고 KAL기 폭파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김현희라는 처녀가 그 주모자였습니다. 결국 많은 생명을 빼앗고 죽인 그들이 잡혔습니다. 김현희는 아주 담담한 표정으로 김포공항을 통하여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죽음과 직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죄 값으로 하루하루가 죽음을 기다리는 날이 되었답니다.

그 당시 그녀를 재판했던 검사가 안수집사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녀를 안심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고 말했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는 회개와 진실된 반성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너를 살리실 것이라고 여러 번 전했답니다. 처음에 미동도 없던 그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살피며 그녀의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하나님이 너를 살리실 때 아무도 너를 죽일 수 없다는 말에 그녀는 "대통령이 용서해 줘야 살지요"했답니다.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을 알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건의 전말을 다 털어놓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용서해 주게 하셔서 죽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심을 전했답니다. 그래서 김현희를 통한 이북의 공작에 대한 내용이 전 세계에 낱낱이 알려지게 되었고 재판에서 결국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대통령의 사면특권에 의해 사면되어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바냐3:8-13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 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케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찌라 그 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 때에 내가 너의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의 중에 남겨 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찌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궤휼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차라리 예루살렘은 포기하고 이방인들을 불러서 그들로 회개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늘의 은혜와 위로와 복을 얻게 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하면 그 믿음이 모범이 되고 은혜와 덕을 끼치는 일에 앞장서고 목회하는데 더 힘 있는 뒷받침으로 참여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예들을 볼 때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절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너무나 교만해지고 비뚤어지고 강탈하고, 사기, 협작, 불의를 행하여 아무리 돌이키기를 일러줘도 교만하여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더 이상 기대 걸 것이 없을 때 예루살렘은 내어버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택하여 회개하게 함으로 정결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순수한 믿음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발전을 오히려 하나님은 더 기대해 보시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은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순수한 믿음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는 충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신자들 중 황소처럼 고집이 세져서 목자가 끌고 가도 잘 따라오지도 않고 제멋대로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도리어 열심을 내는 신자들을 보면서 나도 예전엔 그렇게 열심을 내어 했던 때가 있었다고 도리어 비웃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세월이 흘러 더욱 좋아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퇴보한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이 성숙된 사람은 어떤 박해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힘을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시키면서 내가 기쁨을 얻고 유익을 얻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기꾼과 같습니다.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입니다. 참 신앙인은 자기 믿음이 영적신앙으로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 붙들리고 매달려 믿음으로 성공하는 승리자가 될 때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뒤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하여 기쁨이 넘치도록 회복의 역사가 서둘러진다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15 미주기독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쉽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통신신학 *한국상고사(한단고기, 규원사화)
- 신학(학사, 석사, 종교철학박사 전과정) .
- 한국상고사(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전과정은 일제 식민사학(단군신화)이 아닌 전통역사서 한단고기, 규원사화 중심으로 학사, 석사, 박사 단기 완성 가능함.

*본교는 캘리포니아 Eucation cord #94874 비영리종교법인(연방 501C3)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한국장로교단 미주노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가능함.

아메리칸 중앙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 www.acus-edu.us
mail. 379 Loa drive #301 L.A. CA 90017 paul Lim : 213-908-8986
email : acus-edu@hotmail.com / acuslimjeongeui@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걸 박사, 이사장: 조종곤 목사
1818 S. Western Ave. Suit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i.us / aeuimaster@gmail.com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요.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타베이스 구축
- IRS,FTB,SBOE,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ITC)
- I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쇼설연금,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토요일10 am-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OC부활절연합새벽예배

부모와 자녀 그리고 다민족이
함께 드리는 부활절연합새벽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4월5일(주일) 새벽5시15분
장소: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목사)

T.(714) 722-7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사회: 김기동목사(OC교협 회장)
설교: 한기홍목사(미기총 회장)
찬양: 은혜한인교회연합찬양대
축도: 노창수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

• 영어와 스패니쉬 통역을 합니다.
• 헌금은 전액 타민족 불우이웃을 위한 사랑의라면 기금으로 쓰입니다.

주최: OC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김기동목사)
OC한인목사회(회장 곽재필목사)
OC기독교평신도연합회(회장 윤우경집사)
OC원로목사회(회장 최승구목사)
OC원로성직자회(회장 한영수목사)
OC여성목사회(회장 이선자목사)
OC장로협의회(회장 김종대장로)
주관: OC기독교교회협의회, OC한인목사회,
OC기독교평신도연합회

불편한 예수 Ⅳ

제이슨 송 교장
새언약초중고등학교

이 시대 청소년들은 예수님을 불편한 존재로 여기기에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안하지 못하면 한 세대를 잃어버릴 수 있다 생각한다.

십대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또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그리고 여러 기독교 학교의 설문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해서 왜 청소년들이 예수를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독교 자체를) 불편하게 인식하는지 시리즈로 살펴 보고자 한다. 첫 호에서 제기한 바, 청소년들이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10가지 이유에 대해 각각 해답을 제시해 가려 한다.

3. 하나님이나 부모의 존재가 거북스러우며, 혼자있는 것을 선호한다. 즉, 모든 권위자의 참견을 싫어한다.

이것은 미성숙한 청소년의 전형적인 모습, 즉 가족과 부모, 또는 권위자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려는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인성과 영성 성장을 멈추는 큰 실수가 될 수도 있다.

청소년은 타인으로부터 방해 받고싶지 않아한다. 절친한 친구나 사촌과의 시간이 아니라면 그냥 혼자 있고 싶어한다. 그래서, 청소년은 자신의 개인 시간을 신성한(sacred) 시간, 소중한 시간으로 여긴다. 다시말해, 개인의 private한 시간과 공간은 부모나 형제나 더 나아가 예수님이라도 '침범'할 수 없는 시간이라 생각한다. 이러니 예수님이 '불편한 침입자'로 인식되며, 예수가 '마술병의 마법사', 즉 필요할 때 나타나 원하는 것만 이뤄주는 그런 존재였으면 한다.

물론 유치할 정도로 미성숙한 생각이다. 허나, 일방적으로 청소년을 나무라거나 색안경을 끼고 보기전에 부모도 자신의 청소년 시절을 생각해보는 것이 아주 중요고하고도 필요하다. 필자도 청소년 시절, 부모나 어른과 함께 있는 것보다 친구와의 시간, 또 혼자만의 시간을 더 선호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이 편하긴 했었도, 정직히 생각해보면, 다 좋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청소년은 혼자있는 시간에 그냥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다. 청소년은 혼자 있을 때 무언가를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그 시간에 게임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인터넷을 검색한다. 그래서 혼자의 시간이 매우 위험한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럼, 이러한 청소년을 어떻게 다뤄야할까?

첫째, 개인적 시간과 공간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존중하자. 즉, 어느 정도의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야만 청소년에게 숨쉴 수 있는 구멍(breathing room)을 주는 것이다. 필자는 하나님도 자녀인 우리에게 이런 공간과 룸을 주신다 믿는다.

하지만, 둘째, 일방적으로 아이의 요구를 다 들어줘선 안된다. 적절한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 만약 아이가 방문을 잠궈놓고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기 위해 부모나 타인의 접근을 거부한다면 이건 좀 심각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은 부모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개인의 시간을 어느 정도 존중받고, 그 다음에 가족이나 타인과 시간을 갖기 원한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려는 청소년의 자세다. 이런 요구를 100% 들어줘서도 안되겠지만, 서서히 점차 자녀를 성인같이 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자. 게임을 즐기는 아이가 있다면, 주중엔 게임을 안하되, 주말엔 할 수 있게 해주자. 그리고, 게임을 하려면 엄마 아빠의 사전허락을 받고, 또 정해진 시간동안만 하게 하자. 물론, 학업에 충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학생의 경우 주중에도 게임이나 친구와의 텍스팅/페이스 타임을 허락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절제하지 못하는 학생이라면 정해놓은 시간을 어길 것이 뻔하기에 부모가 잘 모니터링을 해야 하며, 혼자 시간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모니터링 해야 한다. 컴퓨터 사용시간을 절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겠다.

또, 가능하면 게임이나 컴퓨터/핸드폰 사용을 부모 앞에서 하도록 하라. 물론, 이것을 거부하는 학생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정말 디지털 세상이 무섭다. 온갖 저질스럽고 음란한 것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스크린에 뜨기에 아이가 어려서부터 부모 앞에서 단말기를 사용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은 혼자 있을 때 음악이나 영화를 다운로드 해 접하는 것에 익숙하다. 그런데, 아이들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치 않고 토렌트나 불법 다운로드 싸이트를 통해 미디어 콘텐트를 다운 받는다. 이런 청소년에겐 가능한 한 스트리밍(다운로드 하지 않고 듣는 일종의 인터넷 방송)을 하도록 하고, 꼭 영화나 음악을 저장하고 싶다면 떳떳히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하도록 가이드해 주자. 저작권 침해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며, 생각과 행동을 바꾸도록 유도해야겠다.

잠시 여기서 컴퓨터나 핸드폰에 대해 언급한다면, 청소년에게 컴퓨터나 핸드폰, 그리고 유튜브 비디오 같은 것을 100% 금지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사용하게 하고 그저 아이들이 좋은 결정을 내리길 바랄 수만도 없다. 기억하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어둡고 험악한 세상을 헤쳐나아가는 지혜이지 후퇴(retreat)나 도주(flight)가 아니다. 마치 바다 속의 생선이 살아있는 한 몸이 썩지도 않고 소금기도 없듯이, 믿는 자의 내면엔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 그럼 그 생명력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복음, 신앙, 성령, 하나님의 자녀란 본질이다. 이 점을 꼭 잊지 말자.

셋째, 방문을 잠그거나 아이가 혼자있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 너무 민감히 반응하지 말자. 지나치게 아이를 의심하거나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아이로 하여금 더 짜증을 내고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의심하는가?"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 방문을 열어놓거나 부모와 함께 있다 해도 아이의 마음은 동떨어진데 있을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니,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겠다.

그럴려면, 정기적인 가족행사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저녁식사는 꼭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 통계에 따르면 가족이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가정이 20%밖에 안된다고 한다. 온 가족이 일찌기 이런 시간을 통해 좋은 대화, 좋은 시간을 가지면 청소년 시절에도 대화의 창구가 열려 있을 것이다.

짝 사 랑

현순호 목사
실리콘밸리노인선교회

초등학교 때 짝사랑을 한 적이 있다. 80여명의 남녀 아이들이 한 반에서 같이 공부할 때, '한'이라는 성을 가진 여학생을 너무도 사랑했다. 그런데 그녀와 6년을 한 반에서 공부하면서도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졸업하고 말았다.

몇 년이 지난 어느날, 시골 5일장에 쌀을 메고 가다가 반대 쪽에서 오는 그 아이와 마주쳤을 때 너무나도 놀라고 말았다. 몇 년 사이에 성숙해진 그녀의 모습이 나를 당황하게 하기도 했지만, 그 보다는 쌀을 지고 가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했기 때문이다. 몇 발짝 지난 후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녀도 역시 뒤돌아보는 것이 아닌가! 그 때 손이라도 한 번 흔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도 그 때 그 순간이 아쉽기만 하다. 나는 그녀를 짝사랑했던 것이다.

이번에는 짝사랑을 받은 경우이다. 신학교 때의 일이다, 매력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나를 짝사랑하던 여학생이 있었다. 그녀는 내게 전화도 자주 해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며 나를 향한 그녀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그녀가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그녀가 더 싫어졌다. 이유는 그녀는 나의 이상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 그 당시 가난한 신학생에 불과한 내 처지는 그녀를 만나도 차 한 잔 살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가난한 신학생에게는 사랑도 사치일 뿐이었다.

한 번은 등록금을 낼 날짜가 다가와 걱정하는 내게 장학금을 알아 보자고 했다. 그리고 며칠 후, 어느 독지가가 무명으로 준 장학금이라며 내게 내밀었다. 나는 감사하며 가까스로 등록을 마칠 수 있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안 사실이지만, 그 때 그 장학금은 그녀가 받은 것을 나에게 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휴학계를 내고 다음 학기에 등록해서 일년 후에 졸업을 했다. 그 후 그녀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 봉사활동을 하다가 그 곳에서 죽고 또한 그 곳에 묻혔다. 나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선교헌금을 보내주었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녀를 대하는 나의 행동이 너무 냉정했었던 것 같아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다.

성공하는 짝사랑도 있다. 자신의 사랑쟁취를 위해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거나, 선택 기준을 외모나 능력, 학벌, 경제력, 가정배경 등과 같은 것에 두지 않고, 그 사람의 인격을 고려하는 경우이다.

미스터 K는 어린 나이에 부모 따라 미국에 이민와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고 좋은 직장을 다니며 한국말도 잘하는 멋진 총각이다. 그 주위에는 그 수준에 버금가는 좋은 신부감들이 줄을 섰다. 그런데 K씨는 남들의 예상을 깼다. 학벌도 보잘 것 없고 남미에 선교사로 나가 빈민굴에서 비지땀을 흘리며 고아들을 위해 봉사하는 아가씨를 선택했던 것이다. 이유는 간단했다. 결혼 후에 남들에게 도움을 주며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던 것이다. 그 목표는 적중했다. 두사람이 한 짝이 되어 자녀들을 잘 키우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며 지금도 여전히 오지에서 봉사 활동하는 선교사들에게 기도와 헌금을 보내주고 있다. 양쪽 부모님께도 효도할 뿐 아니라 본인들도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가진 짝을 찾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긴 하지만, 내가 반려자를 기쁘게 해 주고, 또 서로 한 마음이 되어 남들을 섬길 짝을 찾아 사는 부부가 될 수는 없을까? 있다. 안 하는 것뿐이지!

혈액 해독 / 기력회복 | 천연 항염, 혈관 탄력 | 심장, 뇌 혈전용해 | 뼈, 골수 영양공급

권장소비자가격: $184/병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산성		중성				알카리성
3.5	6.0	7.0	8.5	9.0	9.5	셀라케어 10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작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카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세트

-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SELLA CARE®

셀라케어 효능사례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발작.자폐증.무감각증	시력장애인으로 태어나 무감각증으로 폐인 상태, 셀라케어 복용 후 완치되어 등산도 다닐 정도입니다. **방세환(20세, 원주)** 010-5599-2633
대장암 말기	대장암 말기에서 간으로 전이된 상태, 2달 복용후 정상으로 회복됨
원자력 피해	일본 2세 남자아이 원자력 피해로 말 못하고 걷지 못했으나 M3 셋트 2달 복용후 말하고 걸을 수 있게 됨 **토요타 빅토리아** 8180-1339-2069
심한 부정맥.해소.천식	심장수술을 받은 분으로 3일 복용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됐음. 30년이상 기관지 천식과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정상으로 돌아옴. **박옥현(77세)**
유방암 완치 후 모유수유	오른쪽 유방암으로 간, 폐, 골수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두 달 동안 많은 양의 M3셋트를 쥬스에 갈아 복용 후 심한 호전 반응 겪고 완치됨.그후 4년뒤 늦둥이를 출산하여 지금 모유수유를 할 정도로 완쾌. **양호연(42세, 엘에이)** 213-215-6991
간질과 약물중독	16년동안 하루에 몇번씩 간질을하여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함. 간질증세도 호전됨. 복용 후 190lb가 125lb로되고 시력,피부,머리카락 좋아짐. **오윤희(26세, CA가디나)** 213-604-1992
직장암, 대장암 말기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하였으나,복용 후 대장속에 있었던 숙변이 피와 함께 쏟아지면서 몸에 있던 큰 혹들이 줄어들며, 복용 후 6개월 후에는 깨끗하게 치료됨. **이순남(77세, 엘에이)** 323-533-0624
심한 아토피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 후 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잠도 잘 자고 키도 많이 커졌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에스터 양(10세, 산타모니카)**213-215-6991
대장암	대장암 초기판정을 받았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M3셋트를 먹기 시작, 수술하지 않고 복용 석달 후 완치 되었음. **한국** 010-7928-7986
비만.우울증.야뇨증	어려서부터 심한 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파운드 였으나 셀라케어 복용 2달후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 하면서 현재는 130파운드로 유지됨. 우울증, 야뇨증이 깨끗하게 치유 되었음. **샘 양(15세, 엘에이)** 213-219-7746
심한 당뇨, 고혈압	30년된 고혈압과 당뇨로 매일 약을 먹던 중 M3셋트 복용 후 4개월이 지나면서 혈압과 당뇨가 정상으로 되었고, 절단직전의 다리와 온몸의 검은 피부가 회복되었음. **오일동(52세, 가디나)**
심한 알러지,우울증.불면증.녹내장	코막힘과 콧물로 밤을 새우는 고통 중 M3셋트 복용3일 후 완치. 심한 심장 압박과 하지정맥까지도 치유됨. **정수지(61세, 베버리 힐)** 310-800-8242
심장병.담석.전립선	10년 동안 고혈압과 밤마다 잦은 빈뇨와 다리가 저려서 고생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악성 빈혈과 혈압이 정상으로 되고 담석으로 인한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마사루(58세, 부산)**
심한관절염.변비.생리통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염 진통제로도 잘 안들었으나 셀라케어로 통증이 가셨고 변비도 해결되었으며, 큰 딸의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황정희(39세, 팔로스버디스)**
중풍마비.당뇨.고혈압	15년 동안의 고혈압, 당뇨를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 후 7개월 만에 고혈압,당뇨, 왼쪽 마비도 정상 회복됨. **민현자(65세, 방배동)**
등 수술후 심한 손떨림	바이러스 침투로 인한 등 수술 후 8년 동안 심한 손 떨림으로 고생중, 복용 일주일 후 부터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손 떨림이 없어지고 안정됨. **박성섭(63세, CA 토렌스)**
자폐증	가족과 의사 소통이 되지 않으며 손발이 항상 차고 손 발끝이 나무 같이 딱딱 했는데 복용 열흘 후 부터 손발이 따뜻하고 부드러워 졌으며,가족과 의사 소통이 가능 해지고 상태 좋아짐. **정대진(16세, 엘에이)**
췌장암 말기	60세 중반에 가장 힘들다는 췌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두 달 시한부 선고를 받고 M3셋트를 복용하고 2개월이 지나면서 부터 기적적으로 췌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음. **피터 리(65세, 엘에이)**
폐암 말기	50세에 찾아 온 암으로 고통 받던 중 복용한지 한달 20일 후 부터 암 수치가 3.5cm에서 1.2cm로 작아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여 5개월 후에는 암 크기가 30%로 작아졌음. **이정수(51세, 서울)**
자가 면역 질환	희귀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 상실, 지속적인 종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M3복용 3일 후 피검사 결과 혁액수치 정상으로 나온 후 한달 복용 후 모두 정상으로 돌아 옴. **미세스 곽(뉴저지)**
모유 아주적음.심한부종	모유수유가 안되어 애를 먹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모유가 더 잘 나오며 심했던 부종이 눈에 띄게 좋아졌으며, 신생아가도 변을 잘 보고 잘 자고 똘똘해졌음. **이은영(32세, 세리토스)**
혈액투석	1주일에 3번씩 2년 6개월동안 혈액투석 해 왔는데, 2달 복용 후 혈액투석 횟수가 점점 줄었고, 지금은 혈액투석을 아니함. **장영순(53세, 한국 서울)**
중풍으로 인한 마비	심한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인생 말년에 찾아온 병으로 비관하며 좋다는 약을 찾던 중 M3셋트를 알게되어 복용 한지 3개월 후 부터 서서히 중풍으로 인한 마비가 풀려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음. **김정훈(76세, 한국 대구)**
임파선암	2년전 임파선 암 수술했음. 셀라케어 복용 후 한 달 20일만에 왼쪽 가슴 유두에서 피고름이 나왔으며, 지금은 키모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 됨. **조인숙(53세, 시카고)**
갑상선암과 심한 관절염	13년동안 심한 관절염으로 신문 한장도 들기가 어려웠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고생. 셀라케어 한달 복용 후부터 심했던 통증이 차차 가라 앉고 갑상선도 정상으로 회복 되어짐. **김정연(39세, 다이아몬드 바)**
전립선암과 부정맥	소변이 힘들고 밤에는 7번씩 소변을보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 하였음. 복용 2달만에 밤에 화장실 가지 않게 되고 혈액검사 때마다 혈관 찾기가 힘들었으나 지금은 혈액 흐름이 원활하여 계속 복용하고 있음. **필립 남(72세, 벨리)**
파킨스 병	3일 복용 후 몸이 가벼워지며 계속 복용하면서 자유로운 외출과 찬양 사역자로 다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지금은 외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 **브라이언 김(70세, 버지니아)**
반신불수	목사님 이었고 5번의 뇌수술 후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복용 2개월만에 지팡이도 버리고 걸어다니고 있음. 왼쪽 마비도 많이 풀렸음. **최정석(50세, 엘에이)**

건강과 성경 이야기 46

한국사람의 평균수명은 79세이고 건강수명은 69세라고 합니다. 평균수명과 건강수명 간의 차이가나는 10년간은 질병등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사는동안 고통의 시간을 없애려면 무엇보다도 예방적인 차원의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 몸이 무겁게 느껴져서 아침에 일어날 때, 걸어 갈 때 특히 계단을 오를 때 몸이 무겁게 느껴지며, 아침에 목이 잘 잠기거나 눈주위가 자주 붓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비장과 신장의 기능이 떨어졌다는것 입니다. 동의보감의 민간요법으로는 나쁜 기운을 제거하는 한방의 삽주뿌리와 자라고기와 율무차가 좋습니다. 특히 몸이 비대하여 행동이 더디고 몸이 무겁고, 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은 율무를 장기간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활동이 원활해진다고 합니다. 두번째로 50세전후에서 흔히 나타난다고해서 오십견이라고 하는 어깨통증은 대략 2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하나는 직접적인 관절의 이상이고 둘째로는 아무관계가 없는것 같지만, 확실히 관계가 있는 심근경색증, 심장질환,당뇨병, 갑상선질환,결핵등으로 인하여 오십견이 생기게 됩니다. 치료방법으로 가벼운 운동과 신장과 간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소목,홍화, 옻나무껍질에 닭 1마리를 넣고 삶어서 먹어보는것도 좋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어려운 사람이나,오십견을 앓고있는 사람 모두가 반듯시 치료를 해야만 2차적인 질병인 심장병,당료,갑상선질환,혈액질환등에서 자유로와질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를 성경말씀을 잠시 살펴보신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3:22에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라고 하는데,여기서의 만상은 하늘의별을 말합니다. 그럼 하늘에 있는 별들은 몇개나 될까요? 망원경이 없었던 시대의 예레미야는 육안으로 약 4,000개의 별들이 있는것을 셀수있었을텐데, 성경에서는 셀수없다고 합니다. 현대의 천체 망원경과 컴퓨터로 별들의 숫자를 보이는것만 세어보니까,10의25승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알의 숫자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셀수없다고 하신것입니다. 또한, 욥기 26:7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라고 북편에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미국의 천문학자들이 발표한 뉴욕타임즈 1981년 10월 2일자, 중앙일보 1981년 10월 13일자 신문에 " 북편 하늘에는 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거기에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지름이 3억 광년이나 되는 별도 없는 텅 빈 상태의 공간이 있다. 보통 이 정도의 크기 이면 약 1천억 개의 별로 구성되는 은하계가 2천 개나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땅을 공간에 다시며 라고 했는데,지금으로부터 약4,000년전 사람인 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지구가 우주에 떠 있는지를 알았을까요? 또한 별들을 설명하시면서 욥기 38:31 **네가 묘성을 매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라고 합니다.이뜻은 네가 묘성을 모을수 있느냐 삼성을 흩어지게 할수 있는냐 라는 뜻인데 실제로 묘성은 황소자리에 있는 별자리로서 육안으로 볼 때는 7개의 별밖에 보이지 않는것이 천체망원경으로 보면 수천개가 넘는 별들이 모여있고, 육안으로 보기에는 모여있는것 같은 삼성별자리가 실제로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흩어져있다고 합니다. 욥기26장14절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그 큰 능력의 우뢰야 누가 능히 측량하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것은 극히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편 147:4 "**저가 별의 수효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와같이 그많은 별의 숫자도 아시고 각각의 이름도 다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 조금만 더 경제적 또는 육체적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는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자 그럼 어떻게 하는것이 몸의 무거운 현상을 없애주고, 오십견을 치유할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의술의 발달로 로봇수술,인공장기,•방사선 치료기 등 최첨단 장비가 개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의료계는 인간의 건강수명을 늘리고자 무한한 도전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피는 생명이다** 라고 하신말씀에는 거리가 먼 치료방법에 열중인것 같습니다. 몸속에 흐르는 혈액에 영양이 공급되면 적혈구가 영양분을 실고 모든세포에 영양분을 제공해 주므로 기운이 생기므로 무기력한 현상과 오십견은 사라지게 됩니다.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것을 어떻게 영양제가 고치겠느냐 라고 반문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좋은 흙에서 자란 식물에서 뽑아낸 유태인 특수 영양제를 복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병에든지 큰 효과를 줄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많은분들이 간증합니다.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무료건강상담 문의 213-435-9600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GMP생산품 입니다. www.sellacare.com

본사(LA)	213.435.9600	뉴서울호텔 (팔달)	213.386.5310	플러튼 내쳐영양센터	714.690.0120	토랜스 한남체인(건강마을)	310.619.7758
시온약국	213.382.6485	LA벌몬 마틴약국	213.382.9718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뉴욕,뉴저지	201.983.8333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LA벌몬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에나하임	714.469.5809	시애틀	206.331.6655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LA 5가버질 그랜드약국	213.380.5103	얼바인	949.330.9009	센루이스,캔사스	314.570.9629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가디나	714.351.0440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예스약국	323.733.7788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818.637.7708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시카고 알바니약국	847.699.1511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밸리	818.642.8223	H 마트 내 H 헬스 (얼바인)	949.251.0193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224.406.0337
LA 다운타운	213.798.3333	밸리 소망 약국	818.832.2757	놀웍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LA시온마켓엄마손약국	213.739.3030	오렌지카운티	213.247.2244	파이오니어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텍사스 (로얄백화점)	972.620.2900
LA 6가 버질약국	213.384.1200	부에나팍 지구촌약국 (H마트 내)	714.228.9212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플로리다/NC/SC	770.457.1717
LA 사랑방	213.351.9552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캐나다	604.872.1669
LA내쳐영양센터	213.739.8874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로랜하이츠	626.912.5727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IS 피해자들의 '용서'로 아랍권에 감동 확산

"IS와 정반대의 충격 줘, 용서 통해 폭력에 저항"

SAT-7과 인터뷰 중인 미리암 ⓒ영상화면 캡쳐

최근 중동의 기독교 매체인 SAT-7이 공개한 2개의 동영상에 따르면, IS의 잔인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아랍권에서 기독교인들의 용서가 확산돼 큰 감동을 주고 있다.

그 가운데 이라크 모술에서 온 미리암(10세)의 인터뷰가 가장 화제가 되고 있다. 그녀는 마태복음 5장을 인용해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전했다.

그녀의 가족은 지난 7월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들과 함께 쿠르디스탄의 어빌 지역으로 피난왔다. 'SAT-7 키즈' 진행자인 에삼 나지는 쿠르디스탄의 난민캠프에 방문해 미리암을 만났다. 인터뷰에서 마리암은 "하나님께서 IS에게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집 밖으로 쫓아낸 이들을 향해 어떤 마음이 드느냐는 질문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길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너도 용서할 수 있겠니?"라고 묻자 그녀는 "그렇다"고 답했다.

SAT-7은 북아프리카와 중동 등 5개 지역에서 방송되고 있으며, 매일 1,500만명이 시청한다. 지금까지 수백만 명이 이 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기독교계 소식을 다루지 않았던 '알아라비아' '욤7' 등 아랍계 방송들도 미리암의 고백을 뉴스로 다루며 관심을 보였다. 욤7은 "그녀의 말을 들은 모든 이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레바논의 일간지인 알 나하르는 "인류에 대한 교훈으로, 이 동영상을 전 학교에서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용서의 메시지는 알아우어(al-Our)마을에서 나왔다. 이 곳은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약 150마일 떨어져 있으며, 리비아 출신 21명의 순교자 중 13명의 고향이기도 하다. 2명의 형제들을 잃은 베시스 에스파노스는 유명 프로그램인 '위윌 싱'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IS가 나의 두 형제를 참수했으나, 그들이 선포한 기독교 신앙과 예수님은 참수하지 못했다. IS는 우리가 구한 것 이상을 우리에게 주었다. IS가 참수 당시 오디오를 편집하지 않아, 마지막 순간 그들(순교한 이들)의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녀는 "IS가 무지함에서 구원을 받게 해 달라"고 기도했으며, "만약 우리 마을에 IS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집으로 초대하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길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집트 SAT-7의 파리드 사미르 사무총장은 "이 동영상은 IS가 공개한 끔찍한 살해 동영상과 정반대의 충격을 준다. 미리암과 베시스가 전한 메시지는 용서를 통해 폭력에 저항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슬람 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알아즈하르대학교의 이슬람학과 학장은 "우리는 반드시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압델 파타 알 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교회가 순교자들의 추모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시리아에는 아직도 200명이 넘는 아시리안 기독교인들이 인질로 잡혀 있다. 이라크에서는 쿠르드 병력인 페쉬메르가와 더불어 처음으로 공식적인 기독교군이 창설됐다.

강혜진 기자

美 백인 주류교단 동성결혼 지지 급상승

2003년 36%→2014년 64%, 관련 재판에도 영향 끼칠 듯

PCUSA 소속 교회 중 워싱턴DC에 위치한 필그림교회가 "동성애자들을 환영한다"는 배너를 걸고 있다. ⓒ필그림교회

교인이 약 170만 명이 소속된 미국의 가장 큰 개신교단인 미국장로교단(PCUSA)이 동성결혼을 인정한 17일(현지시각)이후, 카치 클락-포터와 홀리 부부가 주일인 지난 22일(현지시각) 오후 3시 델라웨어 윌밍턴에 소재한 제일중앙장로교회(First&Central Church)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며,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레즈비언 목사 부부로 탄생했다.

반면 신도 700만 명이 넘는 미국연합감리회(UMC)는 지난 2012년에 진행된 전국총회에서 동성결혼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안건을 다음 회기(2016년)로 넘겼다. 동성애에 비판적인 아프리카 회원들이 증가하고 있어 현 기조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여전히 미지수다.

가장 큰 규모의 남침례회의 경우 동성결혼을 인정하지도, 이와 관련해 다른 중소교단을 돕지도 않고 있다. 그러나 영국성공회, 그리스도연합교회, 미국장로교는 두 남성 혹은 두 여성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약 380만 회원의 복음주의루터회는 교인들에게 자율권을 줘서 찬반을 결정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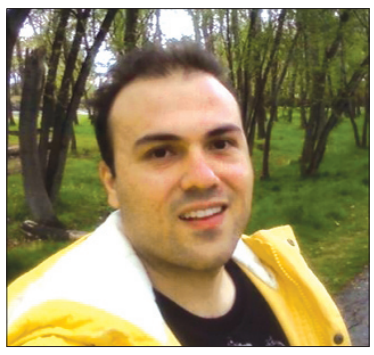
대중종교연구소(Public Religion Research Institute, PRRI)의 연구책임자인 댄 콕스(Dan Cox) 박사는 "동성애 이슈와 관련한 입장 변화가, 백인으로 이뤄진 주류 개신교보다 더 빠르고 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교단은 없다"고 평가했다.

콕스 박사에 의하면, 지난 2003년 백인 주류교단 내 동성결혼 지지율은 36%였으나, 2014년에는 64%까지 증가했다. 그는 "물론 아직 법적 분쟁 중인 개신교회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동성애자들을 수용하는 교회들의 수가 늘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판사들이 동성결혼 관련 사건들을 고려할 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 아베디니 목사 문제 제기할 듯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란에 아베디니 목사 석방 촉구해



사에드 아베디니 목사

이란에서 선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 8년에 처해진 이란계 미국인 사에드 아베디니 목사를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아베디니 목사의 석방을 위한 국제적 청원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미국법과정의센터(American Center for Law and Justice)는 19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란 정부에 아베디니 목사의 불법 체포와 징역 선고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센터 대변인 매튜 클락은 크리스천포스트에 "유엔 인권이사회 내 워킹 그룹이 이 사건을 검토한 후에 우리가 주장해 온 바대로 아베디니 목사에게 내려진 징역형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며 따라서 그를 석방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주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럽법과정의센터가 아베디니 목사 사건을 보고한 데 따라 이 같은 검토가 이뤄졌다고 클락은 설명했다.

클락은 "유엔이 이제 아베디니 목사에게 일어난 일을 규명하고 이란 정부에 그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이다"고도 전했다.

아베디니 목사는 20세에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목회자가 됐다. 그는 미국 시민이 된 이후에도 기독교 구호 사역을 위해서 자주 이란을 방문해 왔으며 2012년 현지에서 고아들을 위한 사역을 펼치던 중 체포되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란 당국은 아베디니 목사에게 국가 보안법 위반이라는 혐의를 부과했으나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들은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된 진짜 이유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선교 활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이란 정부에 아베디니 목사의 석방을 촉구해 왔으며, 오바마 대통령 역시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에게 직접 아베디니 목사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이란 당국은 아베디니 목사를 석방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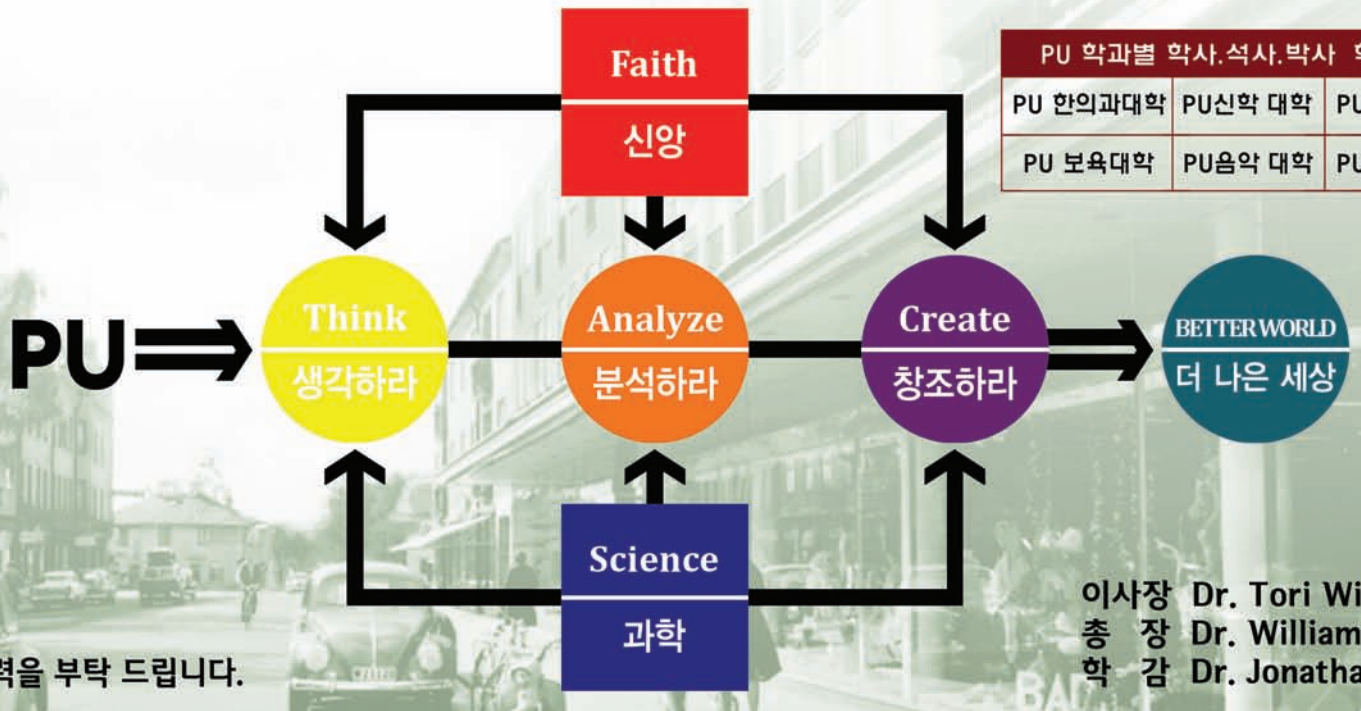
한편, 미국법과정의센터는 전 세계적으로 아베디니 목사 석방을 촉구하는 청원 운동을 진행해 현재까지 26만6천여 명이 온라인 서명에 참여했다.

손현정 기자

축 부활

피드몬트 대학교

피드몬트 대학교는 글로벌 지식정보시대에 기독교 인재양성목적을 지향하는 기독교 정규종합대학교입니다.



PU 학과별 학사.석사.박사 학생 모집(00명)			
PU 한의과대학	PU신학 대학	PU 선교대학	PU ESL
PU 보육대학	PU음악 대학	PU 교육대학	PU ACL

이사장 Dr. Tori William, Ph.D.
총 장 Dr. William Stinde, Ph.D.
학 감 Dr. Jonathan Lee, Th.D.

많은 지원과 협력을 부탁 드립니다.

A 1090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44 T (323)777-5269 F (323)777-3681
E registrar@piedmontuniversity.com, admissions@piedmontuniversity.com Copyright(c) 2007-2010 Piedmont University

뉴욕교협, 이영훈 목사 초청 조찬기도회 열어

이영훈 목사, 오직 십자가 신앙만을 붙잡는 교회되길

뉴욕교협이 23일 오전 이영훈 목사 초청 조찬감담회를 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재덕 목사)가 23일(월) 오전8시 플러싱 금강산 식당 연회장에서 뉴욕지역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영훈 목사 초청 조찬기도회를 열었다.

이날 기도회는 양승호 목사의 사회로 김춘근 목사 찬양, 방지각 목사 기도, 이재덕 목사 환영사, 이만호 목사 강사소개, 이영훈 목사 말씀, 이성헌 목사 광고, 박희소 목사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영훈 목사는 모친의 생신잔치를 위해 매년 3월 뉴욕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으며 뉴욕교협은 매년 이영훈 목사와 조찬기도회를 통해 교류를 가져왔다. 이영훈 목사는 올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도 역임하고 있다.

이영훈 목사는 조찬기도회 말씀을 통해 오직 십자가의 신앙만을 붙드는 교회에 대해 강조했다. 이영훈 목사는 "우리는 어떠한 모임이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강조하자"면서 "어떠한 교단이나 단체나 교회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위에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기 자만에 빠져 있거나 다투고 분열하는 모습을 버리고 십자가와 사랑만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자"면서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신앙 위에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인교회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전 세계에 750만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십자가 신앙을 바로 세우고 제2의 부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면서 "한국에서의 목회보다 10배 힘든 것이 이민목회이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십자가의 능력만이 가능함을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영훈 목사는 성령운동과 관련해서는 "세계교회는 현재 에큐메니칼운동, 에반젤리칼운동과 함께 오순절은사운동이 3개의 축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면서 세계교회의 3대 흐름을 설명하면서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 이야기한다면 성령으로 하나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교회의 연합 움직임에 대해서도 전했다. 이영훈 목사는 "한국교회가 더 이상 분열되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연합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한교연과 화합하는 것을 한교연 대표와도 논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영훈 목사는 조찬을 마친 후 뉴욕교협 임원진들과 함께 리틀넥에 위치한 뉴욕교협 새 회관을 방문,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영훈 목사는 기도를 통해 뉴욕교협이 뉴욕 500개 교회들의 온전한 울타리가 될 것과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임직원들이 될 것을 기도했다.

김대원 기자

PCUSA 내 한인교회, 복음주의 입장 견지할 것

"동성 결혼은 정당화될 수 없어"

서북미 KPC "신실한 복음 공동체로 흔들림 없이 소명 감당할 것"

미국장로교 서북미 한인교회협의회 KPC 정기총회 사진 자료

미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인 미국장로교(PCUSA)가 지난 17일(화), 교회 내에서 게이와 레즈비언 등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인정하는 교단헌법 개정안 14F (동성결혼 인정)법안을 승인한 가운데,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PCUSA교단 소속 전국 430여 개 한인교회들은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미국 기독교 신앙 보수를 위해 진지하게 기도하며 대응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미국장로교 내 한인교회협의회인 NCKPC는 미국 장로교의 결혼에 대한 신학적 견해와 일치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한인교회협의회는 동성애에 관한 교단의 개방성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교단 산하 한인교회는 성경적 복음주의에 입각해 동성 결혼과 그에 따른 건물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하기로 했다.

또한 교단의 이러한 비 성서적인 자유로운 태도에 대해, 자성의 모습과 함께 미국장로교 산하 모든 한인교회는 교단 내의 복음주의적 그룹과 연대하여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미국 장로교단의 올바른 역사적 계승을 추구하기로 결의했다.

한인교회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미국사회의 세속화 추세와 더불어 동성결혼을 신학적 이슈가 아닌 인권적 이슈로 보는 관점에서 기인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목사와 당회가 동성결혼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어긋난다고 확신한다면, 집례를 거부하고 결혼식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북미 지역 PCUSA 소속 한인교회협의회 KPC(회장 강성림 목사)는 "미국사회와 교회가 결혼의 성서적 정의(定義)와 가르침을 거스르며 혼선을 빚고 있는 현실에서 산하 교회들은 신실한 복음 공동체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본연의 사명(召命)을 올바로 감당해 나아갈 것"이라며 "동성애 행위와 동성 결혼을 인권과 정의의 이름으로 옹호하는 세태를 개탄하면서, 동성애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과 동성 결혼을 정당화하는 일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장로교회가 한국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는 원동력이었던 복음적 선교 유산이 풍성한 교단이었음을 상기하고, 아름다운 선교의 전통을 회복하는 운동을 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미국 장로교단의 신학적인 난제를 악용해 교단 내 한인교회들을 왜곡하면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한인 교회가 이를 놓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교회맞선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 2부예배 오전 11:00 / Youth예배 오전 11:00
어린이부 오전 11:00 /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박헌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예배 오후 1:00 / 수요예배 오후 7:00
성인 EM예배 오후 2:00 /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 찬양예배 오후 3:30 /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413-1600 / laopendoor.org

주일 오후 4시 / 새벽 오전 5:30 (월-토) / 저녁 오후 7:30 (화,목,금)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0:00 /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0:00 / 금요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7:4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1:30 /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11:00 / 성경공부 오후7:30 (화) 오전10:30 (수)
금요저녁예배 오후7:30 /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 2부 오전 6:30 (월-금) 오전 6:3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유초등부 오전 11:00 / 중고등부 오전 10:45
대학부 오후 1:00 / 성경공부 저녁 7:30(목) /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6:00(토)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 2부예배 오후 11:45 /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1:00 /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737-3538 / www.laredeemer.com

주일 예배 오전 11:00 / 찬양예배 오후 1: 45
E.M.예배 주일오전 11:00 / 삼일기도회 수요일 오후 7: 30
이 영 담임목사
라성빌라델비아교회
하나님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
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T. (714) 319-2234

주일예배 오전 9:00 / EM예배 주일 오후 11:00 /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00 /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시 30분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주일예배1부 오전 8:00 / 주일예배2부 오전 9:30 /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한기형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9th St,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3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예배 오전 1:30
금요기도회 오후9:00 /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말, 마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09:00 / 2부예배 오전 11:00 / EM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오전 11:00 /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행 (정부 베네핏 전반)
음식 보조 푸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임산부 메디칼
요한 선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예배 오후 1:30
영어예배 오전 10:00 / 수요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김세환 담임목사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 오후 찬양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 금요 구역모임 오후 7:30 / 새벽기도회 오전 6:00
현연섭 담임목사
구인성장로교회
실천하는/전도하는/헌신하는 신앙 공동체
4545 W.Washington Blvd. LA, CA 90016
T.(323)428-7878 F.(323)932-0788 / kuinholy@hanmail.net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후 11:00 / EM 오후 1:00 / 한어청년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lakwpc.org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0:30 /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3부예배 오후 1:00 /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신현호 담임목사
영어예배: 주일오전 10:30 / 성경공부: 주일오전 10:30 / 주일예배: 오전 11:30 /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 토 오전 6:30
새하늘 교회
2909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 213) 500-3721 / www. Newheavenchurch.com

1부예배 오전 9:00 / 2부예배 오전 11:00 / 중고등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종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00 / 교육부 오전 1130
EM 1부예배 오전 9:30 / EM 2부예배 오전 11:30 / 수요예배 오후 7:30 /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 유초등부 오전11:00 / 중고등부 오전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박성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 수요기도회 오후 7:30
LA 선교교회
내 지경을 넓히라, 믿음으로 성장하고, 사랑으로 하나되며, 소망중에 기뻐하자
35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35-0380, (213) 435-0094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젊은이 예배 오후 2:22
EM예배 오후 2:00 /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 1가와 버몬트 코너-100 New Hampshire
주중새벽-LASR대안학교(6가와 라파에트 코너-620 S. La Fayette Park)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 교회
버질중학교 (1가와 버몬트 코너-152 N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 (213)386-2233 / www.LAsarang.com

LA동부, 팜스프링스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영어예배 오후 1:00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주일) 오전 11:30 / 교회학교(주일) 오전 11:30 / 문화교실(주일) 오후 01:30
새벽기도(토) 오전 06:00 / 토요모임(토) 오전 06:00 / 성경연구(수) 오후 07:30
백재준 담임목사
행복한주님의교회
우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군대, 주님의 신부입니다
7690 Archibald Ave. Rancho Cucamonga, CA 91730
T. (626) 710-0798 / todaud7@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오전 11시 (본성전)
최승목 담임목사
본성전 : 75580 E Ramon Rord, Thousand Palms, CA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2015년 표어 :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빛을 비추는 교회(마5: 45)
1. 민족을 넘어서 2. 신앙을 넘어서 3. 국가를 넘어서
T. (760) 636-2675 / palmsprings.onmam.com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00 / 4부예배 오후 12: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 수요예배 오후 8:00 / 금요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965-3443 / F. (626)965-0404 /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7:45 / 2부예배 오전 9:45 /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 2부예배 오전 9:15 / 3부예배 오전 11:45 /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 EM 2부예배 오전 11:45 /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622-2324, F.(909)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수요예배 오후 7:30 / 금요기도회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7:45 / 2부예배 오전 10:00 /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 오전 6:00 (토) / 금요기도회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30 / 목요예배 오후 7:30분 / 새벽예배 오전 6:00(수,토)
주일오후 성경공부 오후 1:30 / 영어예배(EM) 오전 11:30 / 유년주일학교 오전 11:30
안병권 담임목사
가나교회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 (310)986-9797 ganachurch.hompee.com

정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열린예배 오후 2:00 / 수요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 2부예배(EM) 오후 1:15 /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11:45 / 주일학교 오후12:00 /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 금요찬양예배 오후7:45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예배 오후 1:30 /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 2부 11:00 / 중/고예배 오전 11:00 /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30 /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 금요기도회 오후 11:00 /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가디나선교교회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0:00 / 3부예배 오전 11:30 / EM예배 오전 10:00(장년) 오후 2:00(청년) / KM예배 오후 3:00(청년)
장애우예배 오전 10:00 / Toddler - Youth 오전 10:00 오전 11:30 /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 수요예배 오후 8:00 / 금요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 새벽예배 오전 7:00 (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EM1부예배 오전 9:30 /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EM예배 오전 10:00 / 스페인예배 오전 10:00 / 한국어 오전 10시 (힐로우쉽홀) 오후12:00 (본당)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후 6:30 (토) /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최호년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 영어예배 오전 10:00 / 금요예배 오후 8:00 /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영성예배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주일예배 - 오전 9:30 / 11:30
목요영성예배 - 저녁 7:45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비전채플 Vision Chapel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12631 E. Imperial Hw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교사예배(주일) 오전 9:45 / 주일예배 오전 11:00 / 유초등부(주일) 오전 11:00 / 중고등부(주일)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 새벽기도회 오전 5:30 / 구역모임 매월 1회 / 한글학교(토) 오전 10:30
조 인 담임목사
벤츄라카운티장로교회
'예수의 심장으로 섬기는 교회' (빌1:8)
737 W. 6th St. Oxnard, CA 93030
T. (805) 483-7009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큐리오스 인터내셔널 대표 정성욱 목사 초청 한빛 말씀잔치가 20일-23일까지 개최됐다.

"이민교회, 실천적 영성 결핍돼"

정성욱 목사, 한빛교회 초청 "한빛 말씀잔치"에서 밝혀

큐리오스 인터내셔널 대표 정성욱 목사(덴버신학교 조직신학 교수) 초청 말씀잔치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한빛교회(담임 이문규 목사)에서 개최됐다.

'알찬 성도 참된 교회' 를 주제로 열린 이번 집회에 정성욱 목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교회의 본질'을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집회 둘째 날인 21일(토) 정성욱 목사 "베드로가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자라가라' 이다. 현재자리에 멈춰 서서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목사는 "오늘날 교회의 어려움도 자라가야 할 사람들이 자라가지 않기 때문이다. 직분은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는데 영적 나이가 어린아이에 멈춰있다.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를 우리 구주로 믿음으로 영접하고 거듭난 후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자라나게 된다"고 전했다.

정 목사는 "자라가는 것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어머니, 곧 영적인 어머니 교회가 필요하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한다. 영적인 배설행위로 날마다 진지한 회개를 통해 죄 사함의 기쁨을 누리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영적으로 훈련 받아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이웃을 전도하는 것을 통해 영적 성숙을 누리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목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이 감당 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녀로 영적으로 자라가는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란다. 또,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물질 중심주의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두고 물질도 베풀고 나누는 삶으로 변화하라. 고난과 복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게 되면 그를 아는 만큼 우리의 성품도 변하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정성욱 목사는 21일(토) 오전 '조나단 에드워즈의 실천적 영성과 이민목회'를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정성욱 목사는 "이민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실천적 영성의 결핍이다. 신앙고백은 있지만 그 신앙고백과 일치하는 삶을 실천하지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라며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을 중심으로 미주 한인 이민교회의 문제를 지적했다.

정 목사는 "'신앙감정론'을 중심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삶과 신앙고백에 일치한 삶을 추구했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실천적 영성을 본받아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 목사는 에드워즈의 칭의론, 연합론, 성령론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의인은 순종과 실천의 삶을 살게 된다. 성령이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행함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신앙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 희생과 나눔, 선교와 사역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수영 기자

美 남침례회, 쿠바에 성경 83,723권 보급

미국 남침례회(Southern Baptist Convention) 국제선교이사회는 스페인어 성경 83,723권이 쿠바에 도착해 동부와 서부에 있는 수많은 남침례교회에 분배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사회는 최근 "성경을 가득 채운 약 40피트(12m) 높이의 컨테이너 3대가 플로리다 남쪽 항구에서 쿠바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성경은 오는 3월 25일(현지시각) 쿠바의 수도인 하바나에 도착할 예정이다.

남침례회 쿠바 선교 전략가인 쿠르트 우르바네크(Kurt Urbanek)는 "이번 성경 운송은 남침례회가 쿠바에 처음으로 성경을 보내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세 번째"라며 "그 동안 보낸 성경 수는 약 50만 권에 이른다"고 전했다.

그러나 2014년 후반에서야 미국에서 쿠바까지 직항으로 성경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우르바네크는 "쿠바 정부 허가를 얻기 위해 정부 및 쿠바성경공회 관계자들과의 수많은 협상이 필요했다. 성경 보급을 위한 문을 열어준 쿠바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쿠바 정부가 지난 1992년 공산주의가 아닌 세속주의 국가를 선언하며 헌법을 수정한 이후, 종교적인 활동은 더욱 활발해지고 왕성해졌다.

보도에 의하면, 이번에 운송된 성경의 75%가 2곳의 사역지에 배포된다. 하바나에 위치한 서부쿠바침례회가 3만 2천 권을, 산티에고에 위치한 동부쿠바침례회가 3만 2천 권을 받게 된다. 동부쿠바침례회에는 2014년 현재 기독교인 교수들이 약 3만 명 정도 있으며, 지난 몇 년 동안 1,300개의 가정교회가 세워졌다. 서부쿠바침례회에는 기독교인 교수들의 수가 2만 9,063명이다. 성경은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그리고 새 신자들에게는 몇 권만 분배될 예정이다.

국제선교이사회는 라이프웨이크리스천리소스, 플로리다침례회, 코랄프르링스처지바이더클레이드를 비롯해 많은 단체 및 개인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라이프웨이는 약 6만개의 성경을, 선교이사회는 10만 달러(약 1억 1000만원)의 선교후원금을 기부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경에는 연구 성경 뿐 아니라, 사진과 주석이 포함된 큰 성경도 포함돼 있다. 가죽으로 된 2,000달러(약 220만원)짜리 성경을 보낸 플로리다 침례교인은, 쿠바 침례교인과 무려 18년간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쿠바 지역 성경 배포 사역의 한 부분을 맡고 있다.

2015 뉴욕할렐루야대회 강사는 소강석 목사

소강석 목사

2015년 대뉴욕 할렐루야복음화대회 주강사로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가 선정됐다. '맨땅, 맨손, 맨몸'의 '3맨 목회'로 유명한 소강석 목사는 지난 2006년 할렐루야대회 강사로 뉴욕을 방문한 바 있다.

이번 강사 선정은 뉴욕교협 이재덕 회장이 신년초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과 미국의 회복을 위한 기도회가 뉴욕프라미스교회에서 개최됐다.

“뉴욕과 미국의 부흥 위한 연합기도대회”

목회자와 평신도가 한 마음으로 미국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재덕 목사)와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이만호 목사)가 공동주최하고 JAMA(북미주예수대각성운동)과 미기총이 공동주관하는 ‘뉴욕과 미국의 부흥을 위한 연합기도대회’가 18일(수) 뉴욕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개최됐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미국의 회복을 위해 전 미주를 돌며 기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기도회에서 뉴욕의 교계지도자들과 평신도들은 다함께 뉴욕의 영적 각성과 미국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다.

기도회는 이규섭 목사의 사회로, 이재덕 목사 환영사, 이종명 목사 대표기도, 뉴욕장로성가단 찬양, 기도회 동영상 상영, 한기홍 목사 설교, 박마이클 목사 미국을 위한 기도, 류승례 목사 미국을 위한 기도, 김남수 목사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재덕 목사는 환영사에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미국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뉴욕이 깨어나 미주 한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확신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한다”면서 “기도의 뜨거운 불길이 뉴욕으로부터 일어나 전 미주와 세계로 퍼져 나가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종명 목사는 대표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미국 안에서 점차 하나님을 거역하는 동성애, 낙태, 범죄 등이 증가하는데 대해 회개하면서 한인교회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큰 불길로 뉴욕과 미국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했다.

한기홍 목사는 설교를 통해 “미국은 세계 경찰국가로서 테러와의 전쟁 선언하고, 어느나라든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젊은이들이 기꺼이 희생하며 몸을 바치는 나라다. 그렇기에 미국이 잘돼야 하고 복을 받아야 한다”면서 “전 세계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이 나라가 영적, 도덕적으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도회를 이끌고 있는 JAMA는 “지금 미국은 청교도들이 건너온 이래 최대의 영적, 도덕적, 가정적, 문화적 위기를 격고 있다”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던 미국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돌아와 부흥으로 나아오도록 경고를 주고 계심을 깨닫고 함께 기도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JAMA는 또 “성경적 가정제도를 지키려고 노력을 다했지만 37개 주가 넘어갔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전국을 강타하는 강력한 부흥만이 유일하다”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보내셔서 교회에 생명력을 부으시고 사회와 나라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도록 기도하면 고질적인 사회악과 퇴폐들이 정화될 것이며, 경제부흥과 선교부흥도 반드시 뒤따라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서부 LA 지역에서는 대규모의 다민족 연합기도대회가 한인들이 중심이 되어 2011년, 2012년에도 있었고 지난해 11월 11일에도 6천명의 한인들이 타민족들과 함께 얼바인에서 있었다.

김대원 기자

한인 노인, 맥도날드 문전박대 후 1년 “보금자리된 교회”

좋은씨앗교회, 한인 노인 위한 ‘좋은 사랑방’ 개설 1주년 맞아

좋은씨앗교회(담임 임용수 목사 · 맨 오른쪽 첫번째) 가 한인 노인들을 위한 ‘좋은 사랑방’을 개설한지 1주년을 맞았다.

좋은씨앗교회(담임 임용수 목사)가 한인 노인들을 위한 쉼의 공간인 ‘좋은 사랑방’을 개설한지 1주년을 맞았다.

좋은씨앗교회의 ‘좋은 사랑방’은 지난해 1월 플러싱의 한 맥도널드 체인점에서 한인 노인들의 출입을 금지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교회차원에서 마련했던 것이 시초가 돼 지난 1년간 한인노인들의 훌륭한 쉼터 역할을 감당해 왔다.

이민사회에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마땅한 쉼터가 없어 맥도널드 등의 패스트푸드점을 전전했던 어르신들에게 교회가 나서서 쉼터를 제공하고 노인 복지를 위해 힘쓰는 모습은 타 교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좋은씨앗교회는 ‘좋은 사랑방’ 창립 1주년을 맞아 기념예배를 지난 22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임용수 목사의 인도로 정권식 장로 기도, 이만호 목사 설교, 이종명 목사 축사, 박병승 목사 헌금기도, 임계주 목사 축도 순서로 열렸다.

이날 임용수 목사는 ‘좋은 사랑방’을 개설, 운영해 온 소감과 관련, “마땅히 섬겨야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봉사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면서 “비록 만족스러울 만큼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노인 분들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자리매김된 것이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좋은 사랑방은 한인 업체 및 기업들이 꾸준한 도움의 손길로 20석 규모의 테이블의 공간에서 커피 및 다과, 점심 등을 제공해 왔다. 그동안 어르신들은 장기, 바둑을 두거나 텔레비전과 영화를 시청하며 무료한 낮 시간을 유익하게 지내왔다.

‘좋은 사랑방’은 앞으로도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오후4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좋은씨앗교회는 앞으로도 ‘좋은 사랑방’과 같은 한인 노인들을 위한 쉼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이다.

임형진 기자

O.C./얼바인 지역

오병익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2: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건강한 교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
7037 orangethorpe Ave.,Buena Park CA 90621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7:2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00
영어장년부 오전 9:00, 11: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박일룡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GLMC) 주일오후 12:30
수요기도회 수요일저녁 7:30
새벽기도회 (화~금)오전 5:30
(토)오전 6:00
로뎀장로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교회
1759 W. Broadway Anaheim, CA 92804
T. (714) 956-7640 / (714) 956-5845 / WWW.ROHTHEM.COM

주일예배 1부 오전8:30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토 새벽 6:20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새벽예배 오전 6:00 본당
수요기도 저녁 8:00 본당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허귀암 담임목사
놀웍연합감리교회
영혼을구원하여 제자로세우는교회
13000 San Antonio Dr,Norwalk,CA90650
T.(562)802-4959 C.(714)308-7038 / usa8291@gmai.com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가크리스천이다.내가 크리스천이다.하나님은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후 12:30
교육부예배 오후 12:30
김용철 담임목사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교수
얼바인중앙교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1842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714)309-7551
Pastoryckim@yahoo.com

신원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권을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실천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www.socalsamsungchurch.org

주일예배(KM) 주일11:00a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금요찬양예배 7:3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org
mcc.office.email@gmail.com

김민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5
EM영어예배 오후 12:45
금요강해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예 친 교 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9:15
고등부 오전11:30
한어부 오전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홍성준 담임목사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얼바인 한믿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주일 삼김이 예배 :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토요일 오전 6: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주일: 10:30 AM Sunday School (All ages)
11:45 AM Adult Service
1:30 PM English Service
금요모임 : 7:20 PM(성경 66권책별성경공부)
새벽예배 : 5:30 AM (화~금)
6:30 AM (토)
이승필 담임목사
새로운 교회
이 세대를 본 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롬12:2)
12432 9th. St. Garden grove, CA 92844
Mobile: (949) 933-7242
Saerounchurchus@gmail.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1부예배 오전8:15
주일2부예배 오전10:00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10:00
유년부,초등부예배 오전11:3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11:30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토,주일 오전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CA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주일예배 오후 1:00(본당)
E.M예배 오후1:00 (pre-school)
주일성경공부 오후 3:00
목요성령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 (화~금)오전 5:30
(토)오전 6:00
이스라엘 쎄미나 : 매달 첫째주
(토) 오전 10:00
최국현 담임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이스라엘 알리야 선교회-성지순례,정탐전문
4000 Green Ave, Los Alamitos, CA 90720
T. (714)351-0124(Cell), (562)475-4323(Church)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묵상예배 오후 2:30
월요 선교학교 오후 7:30
화요 중보예배 오후 7:30
수요 예배 오후 7:30
목요 성경학교 오후 7:30
금요철야예배 오후 8:00
토요 EM예배 오후 7:30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5-6402, Cell:714-600-7700 www. 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수요기도회 : 오후 8:00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 빛 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성경적 목회 신학대학교 학장 정승룡 박사
성경적 목회 교육원 원장 라세염 목사
사무간사 홍지윤 전도사
회장 주혁로 목사
성경적목회연합회
“누구든지 성경적 목회에 뜻을 두신 목회자께서는 문의 바랍니다.”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el. (562) 896-9191,(714) 252-919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묵상예배 오후 2:30
월요 선교학교 오후 7:30
화요 중보예배 오후 7:30
수요 예배 오후 7:30
목요 성경학교 오후 7:30
금요철야예배 오후 8:00
토요 EM예배 오후 7:30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5-6402, Cell:714-600-7700 www. 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수요기도회 : 오후 8:00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 빛 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성경적 목회 신학대학교 학장 정승룡 박사
성경적 목회 교육원 원장 라세염 목사
사무간사 홍지윤 전도사
회장 주혁로 목사
성경적목회연합회
“누구든지 성경적 목회에 뜻을 두신 목회자께서는 문의 바랍니다.”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el. (562) 896-9191,(714) 252-919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33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

위산과다 개선과 위산역류에 좋은 알파 구연산 $50 ea + tax

각종 질병, 질환에 이미 검증된 오리지널 구연산 $30 ea + tax

HQ구연산의 효과에 대한 명성은 3백만병 판매 대박 히트상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첫 출시보다 두 배나 더 되는 양으로 고객님들을 모시다보니 더 이상의 보너스를 드리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라는 슬로건을만들어 낼 만큼 고객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연구와 실험 그리고 임상을 거쳐 100% 천연 물질로 각종 암과 난치병, 그리고 아토피와 더불어 면역 결핍으로 야기되는 각종 질병들을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약품인 미라팜-22가 출시되어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성의를 다해 준비했습니다.

HQ구연산은 도매가 이하로 고객 직판을 하기 때문에 건강식품점이나 마켓에서는 구입하실 수 없으므로 타사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구연산을 드실 때 신맛으로 고민하시는 분은 저희 미네랄 건강소금을 함께 타서 드시게 되면 에너지 드링크가 되어 건강에도 좋고 먹기에도 편리합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프로모션 A: 알파3병 + 오리지널7병 +소금1병 미네랄 회색 소금(1LB) = ~~$440~~ $100 No tax

프로모션 B: 오리지널10병 + 미네랄 회색 소금2봉지(2LB) = ~~$460~~ $100 No tax

프로모션 C: 알파6병 + 오리지널2병 +소금1병 미네랄 회색 소금(1LB) = ~~$440~~ $100 No tax

한 병은 2-3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 자신있게 권합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척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싸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트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호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늘 피곤하던 몸이 가뿐해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르니 나음.
★비염,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르면서 나아졌다.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까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옴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나물을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혀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펴졌음.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헹구면 농약 끝.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낫고 회복.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이부경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만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라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가며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께만은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 이부경박사 현, 건강과학연구원장, 청주교육대학 대우 교수,
[주요 저서]: 〈노벨상감의 건강박사〉〈당뇨병 치료법〉외 다수.
[상훈]: 녹조근정훈장, 철탑산업훈장, 녹조근정포장 등 수여

(로데오갤러리아 아주관광 옆 골목내)
LA 본점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
HQ헬스 / HQ산삼 / HQ 바이오텍
LA 본점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직영점: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90701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 직영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세리토스 직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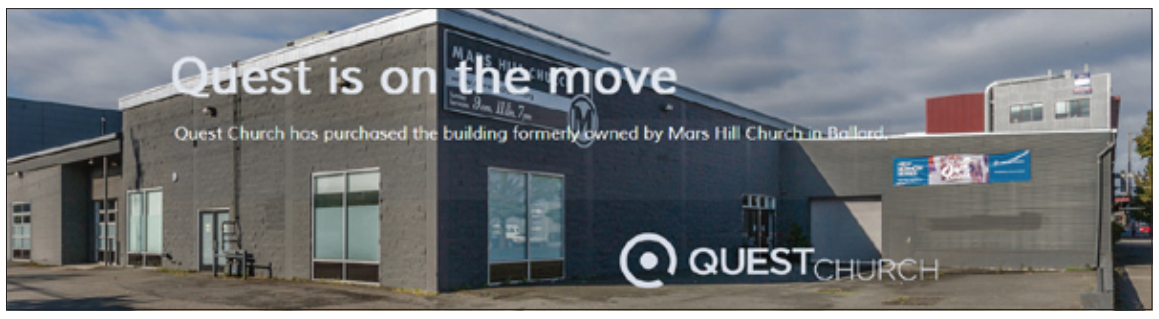
9명으로 시작한 시애틀 퀘스트교회, 어떻게 마스힐교회 건물 구입할 수 있었나?

특별한 전략은 없어, 우리를 향한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믿음

한인 2세 목회자 유진 조 목사가 담임하는 시애틀 퀘스트교회는 담임목사의 자질 논란과 내분 등으로 해체된 시애틀 마스힐교회(1401 NW Leary Way) 구입 배경을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중심이 된 교회로 나아갈 것을 밝혔다.

4만 스퀘어피트, 9백만 달러에 달하는 건물을 구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모아지는 가운데, 유진 조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지속적인 기도를 당부했다"

유진 조 목사



시애틀 퀘스트교회가 이전할 옛 마스힐 발라드 교회 성전

유진 조 목사는 특히 "공식적으로 올해 10월에 새 건물로 입당할 계획인데, 새로운 지역의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 필요한 2백 50만 달러의 모금도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말했다.

- 시애틀 퀘스트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나?

"아내 조민희 사모와 2001년 시작했다. 당시 린우드 외곽에 자리했던 한인교회로 부터 이사를 나와, 정부에서 식료품 도움도 받고 몇 개월 간 서점을 오피스 삼아 일하며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냈었다.

2000년 12월에 우리는 새로운 교회의 비전과 함께 하는 사람들을 초대했고 감사하게도 5명이 나왔었다. 우리 가족까지 모두 9명이 됐고 작은 그룹 성경공부로 매주 목요일 저녁에 모임을 갖다가 2001년 10월에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다.

좋은 것이 하나도 없었던 시작이지만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퀘스트 교회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리고 다민족, 다세대, 커뮤니티와 시애틀, 나아가 세상을 섬기고, 영혼, 커뮤니티의 화합, 열정, 정의, 세계적인 존재 등 다섯 가지 사명을 가지고 시작했다."

- 시애틀 퀘스트 교회는 어떻게 마스힐교회를 매입할 수 있었나?

"우리는 9백만 달러에 가까운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추억과 역사가 담긴 현재 교회 건물을 복음 전파를 위해 7백만 달러에 팔고 나머지 금액은 모금하기로 결정했다.

시애클 퀘스트교회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교회 개척 몇 년 후, 교회 당을 빌려 사용했던 인터베이 언약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 그들의 모든 건물을 퀘스트 교회로 넘겨주었다. 3년 후 기도와 상의 가운데 인터베이 교회는 2007년 퀘스트교회와 합병 됐다. 두 교회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 새로 입주하는 전 마스힐 교회가 현재 교회와 매우 가까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일 수 밖에 없다. 퀘스트 교회는 대형교회는 아니었지만 공간 부족으로 3년 넘게 새로운 건물을 알아보고 있었고, 현재 장소에서 14년 동안 예배해 왔기 때문에 발라드 지역에서 교회를 찾고 싶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가격과 크게 적합한 건물을 찾을 수 없었다. 4만 스퀘어피트 가까운 건물을 얻기 원했으나, 부동산 중개인들은 모두 "불가능"하다고만 했다.

마스힐 교회 건물이 부동산 시장에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는 이미 10명 이상이 구매 의사를 밝혔고,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은 액수를 제안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마스힐은 우리가 교회를 계속 이어가길 원했고, 현재 장소에서 불과 1.2 마일 떨어지고 4만 스퀘어피트 예배당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교회로 사용하던 건물이라 모든 예배 시설이 완벽하고, 게다가 브릿지 케어 센터도 매우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

- 마크 드리스콜 목사와 특별한 인연이 있었나?

"그동안 드리스콜 목사와 가까운 친분은 없었지만, 우리 교회는 이웃 교회였고 주 안에서 한 형제라고 생각했다. 2000년에 그를 처음 만났다. 마스힐 교회가 시애틀 퍼스트 프레스비테리어 처치를 빌려 사용할 때, 그가 마스힐에서 설교해 줄 것을 부탁해 한 적이 있다. 당시 아내가 둘째를 출산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드리스콜 목사가 마스힐 교회 스태프로 일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고, 드리스콜 목사의 아내 그레이스 사모는 음식을 해서 우리 집에 가져다 주기도 했다. 그의 사랑은 잊지 못할 것 같다.

지난해 마스힐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매우 슬픈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었고, 많은 직원들이 해고됐다.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 차이가 있었지만 드리스콜 목사와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였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을 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그들의 회복과 드리스콜 목사 가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드리스콜 목사를 통해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시애틀 퀘스트 교회는 우리 모습을 더욱 점검하고, 말씀 앞에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지역 교회와 함께 사역할 것이다."

- 시애틀 퀘스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의 비전은 아주 간단하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다. 퀘스트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정의가 실현되고, 문화와 예술, 창의성과 다양성, 다민족을 포용하고 지역 사회를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퀘스트교회에는 대형화를 추구하는 문화 가운데 특별한 이벤트나 교회를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를 향한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그 믿음의 교회가 되고자 한다.

또한 복음이 교회의 중심에 선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복음은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도심 가운데 다 민족 교회를 지향하고. 화합을 위한 사역을 추진하는 교회다. 교회 사역자들이나 회중들도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여성 사역과 리더십을 후원하고 모든 회중이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 일을 담당하고 있다. ECC(The Evangelical Covenant Church) 교단과 비전을 같이하는 ECC 소속 교회다."

김브라이언 기자

· 행복칼럼

사랑하면 이해하고, 행복할 수 있다

최종천 목사
분당중앙교회

행복하지 못한 것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식었거나, 지쳤거나, 굳어 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마음 흘러가는 대로이다. 사랑은 흘러가는 마음 다시 추스르는 대로이다. 사랑은 돌이켜 생각하고, 내 어려웠던 때 생각하고, 고마웠던 것 생각하고, 내 부족함 생각하고, 내 어리석음 생각하고, 해야 할 일 생각하고, 가야 할 길 가는 것이고, 그리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애틋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으며, 가엾지 않은 것이 어디 있으며, 사랑할 만하지 않은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아직 다만, 그 씨앗의 딱딱함 속에 갇혀 있는 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일 뿐이다. 어느 날 훈풍 불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면, 내 마음이 풀려 씨앗 속의 꽃을 볼 수 있다.

내 마음 촉촉해지면 강마른 하늘에서도 단비를 맞을 수 있으며, 내 마음 화사해지면 찌푸린 하늘 맑아 꽃비 흩날려 저 멀리 펼쳐짐을 볼 수 있다. 꽃이 흩어져 온 하늘을 덮고 내 마음을 덮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사랑이 나를 덮어 온 세상이 사랑스러워본 적이 있는가? 인간이 사랑스럽고, 인생이 사랑스러우며, 내 삶이 사랑스러워본 적이 있는가?

가도 가도 끝없는 길이 힘들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끝날까 아쉬워 곱씹으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아낀 적이 있는가? 하늘의 푸르름에 눈이 시렵고, 바람 소리 더 많이 들으려 손 오므려 귀에 대본 적이 있는가?

사랑하면 삶은 자연이고, 삶은 은혜이고, 삶은 기대이고 소망이며 이해이다. 사랑해서 다 이해한 만큼만, 그가 불쌍하고 가여운 만큼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인생이란 다 가여운 것인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미워하겠는가!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해하셨다. 그 사랑이, 그 이해가, 그 자비와 불쌍히 여김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 바란다.

미주대한신학대학교

신입 편입 편목 학생모집

한국 **대한신학대학교**(현, 안양대학교–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종합대학교)는
1948년 고 김치선 박사께서 설립하여 수많은 사역자들을 배출하고,
미주대한신학대학교는 1995년 총회 인준 미주지역 교역자 양성기관으로 주정부 연방정부,
주정부교육국인가(Education Code 94874(e)(I))로 B.A., M.A., M.Div., D. Min., D.D.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정규 신학대학교로 **신입생, 편입생, 교단교육생(편목)**을 모집하니 수시로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미주대한신학대학교의 특징

- 기간 : 학년제가 아니라 학점제를 누구든지 단기간에 학점을 따면 전과정을 마치고 정식 학위를 받을 수 있음
- 학비 : 본 신한대학교는 교단장학금으로 누구든지 반값 등록금으로 공부하여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선처함
- 안수 : 본 신학대학교의 소정의 과정을 마친 자는 전도사, 선교사, 목사로 안수를 받아 파송을 받을 수 있게 함

DLC Cour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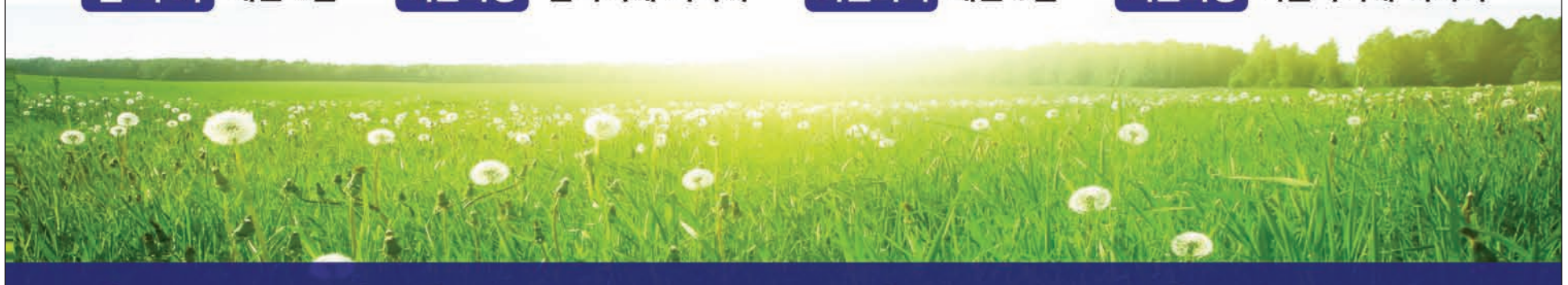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경제적, 시간적 여건으로 강의 출석을 할 수 없는 자를 위한 과정임(Distance Learning Course). 이 과정을 통해 본 대학에서 보내는 학습교재와 지침을 따라 이수하면 학점 인정을 받게 됨. 단 7과목(21학점)에 한함
(DLC 과목 : 전도학, 구약개론, 신학개론, 기도학, 모세오경, 공관복음, 바울서신)

학위과정과 이수학점

남, 여 전도사 Diploma	60학점	세례교인으로서 학력제한 없음
평신도선교사 Diploma	60학점	세례교인으로서 학력제한 없음
신학사 B.A.	120학점	고등학교 졸업자, 일반대학 2년 수료자
신학석사 M.A.	60학점	신학사 학위 소지자, B.A. 학위 소지자
목회학석사 M. Div.	96학점	B.A., M.A. 학위 소지자나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
목회학박사 D. Min	48학점	M.Div. 소지자로 목회 경력 3년 이상된 자
신학박사 D.D.	48학점	Th.M. 소지자. M.Div. 소지자. D.Min. 소지자 추가학점만 취득
교단교육 편목	12학점	조직신학, 교단신학, 교단사, 총회헌법을 Campus On/Off로 이수 이수증, 이력서, 목사안수증 사본을 제출하면 남가주노회에 가입됨

구비서류 이력서 입학원서(추천서 첨부) 여권사진 2매를 E-mail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서류심사 후 입학여부를 통지함

봄 학 기 매년 1월 **여름특강** 봄학기에 이어서 **가을학기** 매년 9월 **겨울특강** 가을학기에 이어서



총장 권오달 박사 | 부총장 박효우 박사, 김상돈 박사 | 학장 박병구 박사 | 이사장 류당열 박사
토랜스분교학장 김영구 박사 | 스포츠선교학장 김영배 박사 | 인랜드분교학장 강부웅 박사

연락처 : (562) 924-3330(총장), (213) 905-0103(학장), (323) 731-9819(이사장)
E-mail : daeshin47@hanmail.net(학교), daeshin48@naver.com
L.A. 본교 Campus : 2911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무슬림에게 다가가는 방법, 오직 사랑으로

극단주의 무슬림의 프랑스 언론사 테러에 이어 IS(이슬람국가)의 일본 크리스천 언론인 '참수'로 이슬람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지는 이동주 박사(사진·선교신학연구소장)가 '무슬림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논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이동주 박사
선교신학연구소 소장

무슬림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4) 구원론과 결론(끝)

4-4. 구원의 역사적 사실성

무슬림들은 무죄한 자를 죄인 대신 벌하는 것을 불의라고 한다. 의인이 형벌을 받는 일은 불의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대속도 있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슬람에는 아무 것도 없다. 역사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알라의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화해도 없고, 새 사람도 되지 않고, 거룩함도 없다.

구원의 역사적 사실성은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독특성이고 유일성이다. 다른 종교에는 나름대로 구원론이 있지만 말과 상징과 신화뿐이고 구원에 신빙성을 줄 만한 역사적 근거가 없다. 신구약 본문은 기도응답의 사건들로 가득하고, 마찬가지로 개개인 성도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우심과 기도 응답의 체험으로 살아간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요 1:14)은, 귀신이 홀연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갑작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미리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는 말씀(암 3:7)과 같이, 반드시 먼저 예언하시고 후에 성취하시는 특성이 있다.

신구약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리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적 통치로 인해 그것을 경험한 구약의 백성들은(신 4:7.4), 그 사실성으로 진리를 입증하고자 했다(고전 1:22, 겔 36:33-38, 37:21).

자유주의자들이나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 구원이 역사적 사실성을 거슬러 기독교의 구원의 사실과 구원자까지 신화화 내지 상징화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기독교인들은 성령 체험과 은혜 체험의 사실로 말미암아 그것들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영인 성령의 강림이 역사적 사실이고 체험적이며, 옛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의 하나님과의 교제와 기쁨도 현재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시며 역사 속에 강림하심은, 인간의 공로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표현이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주신 것과 하나님과의 현재적인 화해와 부활의 약속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선물이다.

4-5.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

무함마드를 포함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준법자의 위치에 있다. 꾸란은 오히려 무함마드가 준법자의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범법자임을 보여주고 있다(Sura 47:19, 48:2).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준법자가 아니라 입법자의 위치에 계신다. "…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세우는 입법자는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일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의 계명을 강화하셨다. 하나는 드러나지 않은 인간 내면의 법을 조명하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의 법이다. 인간 내면의 법과 사랑의 법은 아래와 같다. 살인, 간음, 맹세, 보복 등에 관한 아래의 법이 더욱 구체적으로 주어졌으며, 무슬림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가르친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마 5:21-22).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 5:28).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마 5:33-36).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마 5:39).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44-45).

우리는 "예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 34-35)"는 말씀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마 5:44-45)"라는 말씀을 준행해야 한다.

4-6. 구원으로의 초청

어떤 중동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특별한 선택에 의해 구원을 받은 자 이삭의 후손이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선택받지 못한 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며 고민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착상이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구원의 소유자가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해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일 뿐이다. 그 사명이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에 필요한 제사장으로 사용받는 일이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창조된 사람들인 무슬림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도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더욱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속히 전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슬림들을 사랑하고 감싸 안아야 한다. 무슬림들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우리 사역자의 모습은 정복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의 모습이어야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께 가까이 가야 한다. 그래서 무슬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항상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다. 그것은 자연인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이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받고 싶어하시던 것이 바로 이 사랑이었고(요 21:15ff), 마침내 그 사랑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베풀 수 있도록 베드로와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롬 5:5).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파송된 선교사이며 또 선교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분과 동역만 잘 이루어지면(고전 3:9)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실행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이다. 우리 선교의 실패는 진실한 아가페의 부재와 하나님과의 친밀성 상실에서 일어난다.

우리는 한편으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이슬람의 지배에서 스스로 지켜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순교적인 사랑으로 무슬림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생명과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한국은 세계선교를 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국으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진리와 자유를 무슬림 영혼들에게 빨리 전해야 한다. 교회의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과 중보기도가 우리에게 더욱 시급히 요청된다.

결론

무슬림들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과 같이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요일 4:8)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하게 받고 있는지에 관한 사실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게 친히 다가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인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도 없게 된 것이다(요일 2:23).

그러므로 무슬림들은 두려워하는 종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성이 성립돼 있지 못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하면 무슬림들은 하나님을 "인격화"하는 것이라고 느껴 이를 대 신성모독죄로 여긴다. 모든 무슬림들은 창조자인 알라와 인간과의 관계를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만 알고 있다. 꾸란이 알라를 제외한 모든 존재는 피조물이고 알라의 종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죄사함이나 화해의 기쁨이 없고, 마음 속으로 평화도 누리지 못하고, 새 사람이 될 방법도 없다.

성령을 받지 못한 무슬림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사람이므로, 복음의 모든 개념을 육적이고 물질적인 개념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알라는 인간에게 사랑과 용서의 법이 아니라, 보복의 법을 주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여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코는 코로 귀는 귀로 이는 이로 상처는 상처로 대하라 했으니…(Sura 5:45)". 꾸란은 알라가 심판날에 인간의 모든 행위를 저울에 달아 계산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그들의 죄악을 인정하고 그들이 알라가 요구하는 만큼의 선행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불지옥을 두려워하는 무슬림들은 항상 근심과 불안에 시달리고 알라의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무슬림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슬림들에게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자격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달해야 한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참하게 끊겨 불지옥으로 던져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부모와 같은 사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과 신약에 약속하신 최대의 선물을 무슬림들을 포함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제공하시는 것을 알려야 한다.

참 사랑의 하나님은 누구든지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다 받을 수 있는 선물을 주신다. 그 선물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는 것이며, 모든 원하는 사람들에게 친히 다가 오셔서 죄악과 마귀의 쇠사슬을 풀어주시는 것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가를 받아주셨기 때문이고(막 10:45), 죄인 당사자가 더 이상 지불해야 되는 죗값이 남아 있지 않으며, 그는 죄악과 마귀의 종에서 풀려나 영원히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영인 성령도 보내 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영원히 함께하심을 베푸시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재와 역사적인 사실성을 무슬림 구도자들은 알고, 속히 이 놀라운 사랑의 복음을 듣고 사랑의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 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이다. 〈끝〉

축 부활
마데테스 개혁신학대학교/대학원
MATHETES REFORMED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2015년도 학생 모집

www.mrtsusa.org
E-Mail: mrtsusa@hotmail.com

학위취득 과정 및
야간,통신,인터넷, 학생모집 학과

◈ 대학교과정(Bachelor) 4년
❖신학학사 ❖기독교 교육학사 ❖종교 음악 학사 — 고졸 및 동등학력 자
◈ 대학원과정(Master) 3년
❖기독교 교육석사 ❖종교 음악 석사 ❖신학석사 ❖목회신학 석사 — 대졸 및 동등학력 자
◈ 박사과정(Doctor) 2년
❖기독교 교육학 박사 ❖목회신학 박사 ❖신학 박사 ❖종교철학 박사 — 대학원 및 동등학력 자

"신학의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 본교는 순수한 개혁주의 기독교대학으로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을 발굴하여 훈련하며 지원하여,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각자가 힘껏 헌신할 수 있도록 사역자의 길을 준비케 하여 세상으로 보내는 곳입니다.
● 또한 본교는 세계 어디에서나 학문을 연구하고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 및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르심에 확실한 소명이 있는 사람 중에 재정적 형편에 따라 장학금 학비 전액면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학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나 왼쪽 위에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 교무처: (323)428-7878 ● 교학처: (213)999-1307
● 한국 사무소: 070-7883-3011 / 02-888-0672

2015년 Spring Semester Time Table
봄 학기 강의 과목

Subjects	Professor
◈ 조직신학(기독론) Systematic Theology IV	현연섭 박사 Dr. Youn Sup Hyun
◈ 청도교 신학 Puritan Theology	박상목 박사 Dr. Sang Mok Park
◈ 기독교 교육 철학 Philoso. Chr. Education	임영호 박사 Dr. Yong Ho Yim
◈ 욥기 Jobs	이징수 박사 Dr. Jing Soo Lee
◈ 시가서 Poetic Books	김 철 박사 Dr. Chul Kim
◈ 성경적 지도자론 Biblical Leadership	정승룡 박사 Dr. Joseph S.Jung

Mathetes Reformed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4545 W. Washington Bl. Los Angeles, CA 90016 U.S.A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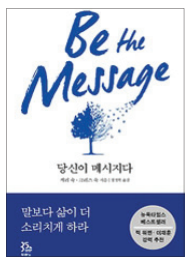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당신이 메시지다

케리 슉, 크리스 슉 | 두란노 | 292쪽



설교와 가르침을 소명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설교와 말에 점점 진저리가 났던 저자들은, 성경의 진리를 탐구하던 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살아 계신다"는 구절에 주목, 그 구절을 깊이 파고든 끝에 '복음의 메시지는 삶의 메시지, 즉 우리의 삶 자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말과 설교의 복음을 넘어 행동하는 복음, 사람을 위한 복음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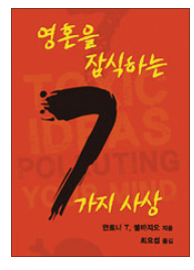
사모, 그 아름다운 동역자에게

캐서린 J. 스튜어트 | 생명의말씀사 | 272쪽

앞서 간 미국에서 모범적인 사역을 펼치고 있는 선배 사모 14명이 후배들을 돕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주제 14개 항목에 대해 자신이 깨달은 통찰을 편지 형식으로 담았다. 구체적인 사례로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실제적이고 유용한 조언이 들어 있다. 새내기 사모들에게는 사역 매뉴얼을, 이미 목회 중인 사모들에게는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위로와 도전을 건넨다.

영혼을 잠식하는 7가지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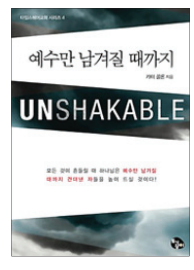
안토니 T. 셀바지오 | P&R | 216쪽



오늘날 사람들의 감정과 행동을 형성하는 현대의 대표적 사상 일곱 가지를 차근차근 쉽게 짚어준다. 이 7가지는 테크노폴리(Technopoly), 네오필리아(Neophilia), 평등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 소비주의, 상대주의로, 그리스도인들의 영혼 가운데 우상으로 자리잡고 세속주의로 물들이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들과 대조되는 성경의 사상들을 통찰력 있게 제시한다.

예수만 남겨질 때까지

카터 콜론 | 토기장이 | 352쪽



'타임스퀘어교회 시리즈' 네 번째 도서. 믿음대로 살고 믿음을 전하는 저자가 불같은 시련 중 얻은 생명과 증언, 기적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는 부요의 시대 이후 찾아올 광야의 시대를 예고하면서, '역사의 마지막 구간'을 사는 성도가 가져야 할 영적 감각을 제안하고 있다. 하나의 장르로 단정짓기 어려운, 본질적이고도 강력한 복음 메시지와 통찰력, 영적 각성을 담고 있다.

REVIEW

"인간에게 왜 시간이 주어졌을까?"

시간에 대한 생각을 180도 바꿔 줄 책, 인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라!

시간의 변화 없이 내 삶은 변하지 않는다. 시간을 건지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인생이 바뀌고 시간의 배분이 달라진다. 먼저 추구해야 할 것들을 분별하게 된다.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를 알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살게 된다.

이 책은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다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을 살 수 있는지 흥미롭게 추적하고 있다. 지혜롭게 사는 법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

저자는 젊은 날 언제나 시간에 쫓겨 살았다. 솔직히 말하면 바쁘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줄 알았다. 바쁜 것이 성공의 척도라 여겼고, 더 바쁘게 사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숨돌릴 틈 없이 살다가 어느 날 덜컥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의 생애도 말할 수 없이 바쁘셨다. 공생애라고 부르는 메시아의 일상은 늘 사람들과 숨바꼭질하듯 분주했다. 그런데 그분의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고요함에 시선이 끌렸다. "이분은 대체 어떤 시간을 사셨나? 어떻게 고작 3년 일하고 다 이루었다고 하시나?" 하는 질문이 마음속에 맴돌았다.

땅의 시간 하늘의 시간
조정민 | 두란노 | 252쪽

어느 날 그 비밀이 파노라마처럼 드러났다. 예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전경이 펼쳐진 것이다. 그것은 땅의 시간에서 하늘의 시간으로의 초대, 인간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의 초대,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의 초대였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시간의 강을 건너 강 건너편의 '영원'이라는 시간 속으로 건너갔다. 영원에서 오신 분이 인간의 시간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목적은 하나.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접속이다. 예수님은 그 연결점에 십자가를 세우셨다. 십자가를 넘어서면 누구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의 사랑 노래를 부른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시간의 혁명을 경험하는 사건이다. 그 혁명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인간의 시간에 묶이지 않는다. 더 이상 내 시간을 고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시간이 내 안에 흘러드는 만큼 자유하다. 이 여유, 이 풍성함, 이 너그러움이 신앙의 본질이다.

이 책은 쉼 없이 달려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시에 시간의 긴박감을 놓쳐 버린 사람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초대장이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쓰는 사람의 시간은 새로운 시간이 될 것이다.

이영인 기자

"한국교회,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위기는 시작일 뿐"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2」 출간한 최윤식 · 최현식 박사

최근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2(생명의말씀사)」를 펴낸 미래학자 최윤식·최현식 박사의 기자간담회가 3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토즈에서 개최됐다.

목회자 출신의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는 지난 2013년 5월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생명의말씀사)」를 통해 10-20년 후 한국 사회와 경제의 변화에 따른 교회의 영향과 함께 '(이대로 변하지 않는다면 찾아올) 한국교회 대위기론'을 제시해 큰 주목을 받았다.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와 기관들이 앞다퉈 최 박사를 초빙해 강연을 들었다.

동생인 최현식 박사(예수나무교회)와 공저한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2」에서는 그가 제시한 위기론에 쏟아진 '대안 또는 해법'을 묻는 질문에 답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적 '응급 처방'은 물론, 위기를 치유할 장기적이고 성경적인 '근본 해법'을 통해 '그래도 교회가 희망'임을 역설하고 있다.

이번 책에서는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주신 마지막 골든타임 10년을 놓치지 마라'는 슬로건 아래, 한국 경제의 위기에 따라 2-3년 후부터 시작될 교인들의 개인적 경제 위기로 자중지란이 일어날 수 있고, 인구학적으로는 15년 후(2028년 전후) 근본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2-3년 후 한국 경제의 상황에 따라 교회도 정체나 심각한 재정 위기, 파산 또는 분열 가능성 등의 우려와 이에 대한 5가지 응급 처방에 나선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 저자들은 "위기를 선제적으로 인식하고, 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각 교회와 목회자들이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면 오히려 또다른 부흥과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면서 응급 처방 5가지와 '성경이 말하는 3대 근본 해법',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100세 시대 떠오르는 '신중년'들을 위해 한국교회가 짊어져야 할 시대적 소명 7가지를 제시한다.

기자간담회에서 답하고 있는 최윤식 · 최현식 박사(왼쪽부터)

최윤식 박사는 책에서 한국교회 위기의 진원을 외부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와 경제 위기 등 '상황의 변화', 내부적으로는 '교회다움의 상실'로 진단하고 있다. 그는 "겉으로 드러난 재정적 위기가 책의 전면에 있을 뿐, 한국교회의 위기는 타협하는 복음과 도덕성 상실, 리더십 문제 등 내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고 예전보다 빠르게 세속화된 모습을 띠고 있다"며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위기의 정점에 '재정 문제'가 있고, 그것이 방아쇠(trigger)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포럼에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을 때 기근과 염병, 칼로 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지금 경종을 울리신다면 과연 무엇으로 하시겠는가'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며 "하나님께서 지금 칼이나 염병, 기근으로 치시진 않을 것 같고, 현대 자본주의 시대이므로 그만큼 무서운 것이 돈 아닌가 하는 소견을 밝힌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박사는 "한국교회의 문제는 현재 한 두가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고쳐서 해결될 수 없고, 총체적 문제이므로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며 "그래서 근본 해법은 말씀과 함께 믿음의 회복에 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근본 해법은 내적으로 교회다움을 회복해 교회와 교인을 회복시키고, 외적으로는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붙잡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적 감소나 교회 재정 악화 등이 과연 '교회의 위기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최윤식 박사는 "목회자 집안 출신인 자신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부터 시작해 구속사적 관점과 경영적 측면, 교회 재정까지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한 것"이라며 "기존에 교회 위기를 이야기할 때는 교회 내 기존 요소들로 접근했지만, 저희는 교회가 세상과 동떨어진 곳이 아니라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까지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박사는 "단순히 재정의 회복이나 교인 수의 증가를 '해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며 "그것은 (위기 극복의) 열매일 뿐이고, 교회다워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은 그래도 교회가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이라며 "지금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하시는 경고이자 말씀이고, 이 시대를 잘 이끌어가기 위한 도구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 "요셉 시절 애굽에서 7년의 흉년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구속사적 측면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는 계기가 되질 않았느냐"며 "지금의 위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한다는 게 결코 아니고, 이 위기를 경고로 잘 들으면 다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위기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에는 "물론 그렇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는 예언은 결국 돌이키라는 말씀 아닌가"라고 했다.

최 박사는 "구체적이고 강하게 위기를 말하는 이유는,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위기의식을 갖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갱신하는 데는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라며 "그래서 이제까지의 연구를 통해,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의 위기는 시작에 불과하고 위기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해법은 결국 성경이지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자는 내용을 지혜와 균형감을 갖춰 전달하려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교회의 '성장'과 '성공'과 관련해서는 '위기'의 대척점에 흔히 말하는 '성공', '성장'이 있지 않다고도 했다. 그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사역인데, 언젠가부터 인력(人力)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어그러졌다"며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 인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맡겨진 영혼이 1명이든 100명이든 충실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외부적 위기는 저출산 · 고령화 · 경제 등 '상황변화'
내부적 위기는 복음 타협과 도덕 등 '교회다움 상실'

최윤식 박사는 "초대교회든 지금 한국교회든, 본질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하실 것"이라며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성도답게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가 중요한데, 성장과 이것 둘이 함께 가기는 힘들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했다.

최 박사는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도를 모으고 더 큰 교회를 지을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가졌다면, 이제 잠시 내려놓고 한 사람을 끝까지 양육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교회 성장'이라는 신화를 버려야 한다"고 했다. '교회 건축'에 대해서도 "건물은 분명 하나님의 도구이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과시적이고 분에 넘치게 건축하는 게 문제"라며 "또 하나는 찾아올 수 있는 소나기(경제 위기)를 피하는 측면에서 건축을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저도 24년 목회했지만, 목회자들이 '성장'을 내려놓고 패러다임을 전환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며 "잘잘못을 떠나 '성장'이 가능하고 힘들지 않은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려놓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고,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는 법"이라며 "우리가 양적 성장을 얻었지만 영성을 잃었는데, 한국교회가 장차 재정을 잃을 수 있지만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를 놀라운 기회로 삼아 첫사랑을 회복할 수도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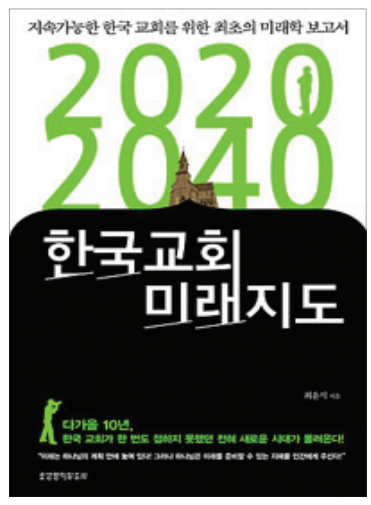
최윤식 박사는 "우리가 지금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이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단, 시간이 필요하다.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도자들과 전문가들, 언론들에서 자꾸 이야기해 주고 격려하고 도전해 이끌어 줘야 하고, 저희 책도 그러한 측면에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공저한 최현식 박사는 주일학교 문제와 함께, 은퇴했지만 여전히 '팔팔한' 100세 시대 50-60대 '신중년' 문제에 대해 파고들었다. 100세 시대에는 50세가 '생의 절반'일 뿐인데 은퇴를 해야 하고, 이들은 다시 취직해 80-90대까지 생의 전반기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것. 이러한 상황은 사상 처음 찾아오는 것으로 '학습효과'가 없어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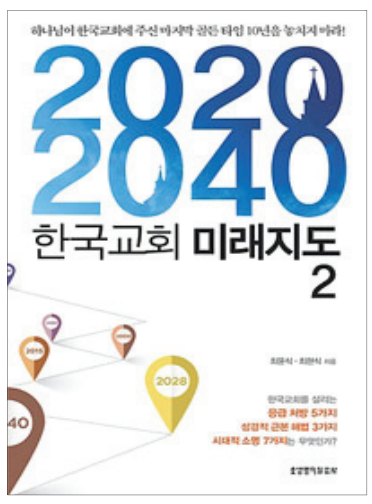
최현식 박사는 "한국교회에서 이 연령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 같았지만, 사실 아직 실현된 적이 없었기에 모호한 영역이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베이비붐 1세대의 은퇴가 불과 몇 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모호한 경계에서가 아니라 곧 닥칠 현실임을 잊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를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역의 영역들을 힘껏 발휘할 수 없게 된다"며 "과거보다 6-10년은 신체적으로도 더 젊어진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도록 훈련시킬 것인가에 각 교회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전했다.

이대웅 기자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최윤식
생명의말씀사 | 376쪽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2
최현식 · 최윤식 공저
생명의말씀사 | 344쪽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213.487.0691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한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깁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걸작품입니다.
NB CORSET
허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NB 코르셋의 특징
1.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2.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3.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완화)
4. 특수 공법으로 수축되지 않고 인체에 완벽한 섬유와 세계 특허 이중지퍼 사용. 한국 식약처에 의료기기로 등록된 교정 코르셋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깁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나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깁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NB CORSET Tel: 323.316.6815
'기적의 섬유'로 만든 「음이온 건강이불」 발이 불편한 분은 「NB 메디칼 슈즈」, 가장 강한 「SJP 슈퍼 유산균」 건강제품 전문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중고차 황제 김기형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윌셔+킹슬리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당뇨신약개발, 현 FDA임상 2차 실험진행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 · 재향군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Special Price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BSBFJ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 입니다!
퇴거.파산.이혼.이민.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칼라 레이저 프린터 리스(임대) $49.99/mon 선착순 5명
SAMSUNG ELECTRONICS
$69.99 $149.9 SAVE:$80.00 (53%)
MULTIFUNCTION LASER PRINTER
레이저 프린터(칼라흑백)
Blow Out Sale!!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SAMSUNG SCX SERIES SCX-3405W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야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미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쉽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KO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번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TOGO &캐더링 환영
머글래 싸갈래
연말연시 동창회 및 단체모임, 교회행사, 가족모임 캐더링 · 도시락
요일별 음식 하루종일 $7.99
월 북어국 돈까스 오징어볶음 새우볶음밥 해물수제비
화 닭불고기 공차구이 오므라이스 떡만두국 우거지갈비
수 동태찌게 함박스텍 코다리찜 카레라이스 유부+우동
목 갈비탕 제육볶음 자반조림 소고기볶음밥 오뎅백반
금 꽁치김치 뚝불고기 민어구이 김치볶음밥 오징어찌게
토 부대찌게 갈치구이 돈까스 치킨데리야끼 김밥+우동
323.660.1004 (천사)
213-598-5552
4429 W. Beverly Blvd. LA CA 90004
주일은 쉽니다.
타운내 신속배달 (2인분 이상)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온 돌 마 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획기적인 절전제품/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찜질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트렌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튠업정비
10% 할인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회비 : 월 $10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문의 : 213.392.2323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인삼생리대
익모초생리대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CA 90020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 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소스피드 다이어트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1주분 다이어트 약 $60 부터...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임신 중 튼살 방지
•건선으로 인한 굵은 주름(얼굴,목)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치질(항문하혈, 통증)
•독소제거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불임증(자궁혹, 하혈)
•우울증
•관절염
•원형탈모
•구연산 캡슐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빼는 숙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 $50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영어: 213.380.6868
각종보험취급 (오바마 케어 포함)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윈현대 칼슨 HYUNDAI
이번달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이벤트
"2015년형 뉴 제네시스 입하"
Genesis 2015 ALL NEW 2015 GENESIS SEDAN
Genesis 3.8 2014 ALL IN STOCK @ $36,120 Lease for $249 PLUS TAX @ 36 MONTHS
Equus signature 2014 ALL IN STOCK @ $61,920 Lease for $399 PLUS TAX @ 36 MONTHS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Alex Shin 한인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ashin@winhyundaicarson.com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 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All advertised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any electronic filing charge, and dealer document processing charge, and any emission testing charge. All vehicles are at Carson location. Offers available through Jan. 27, 2014

"北에도 복음 전파되는데, 전도할 수 있다"

통합 서울노회 국내선교부, 2015 전도대회 개최

자양교회 본당에서 송신복 목사가 간증을 전하고 있다.

예장 통합 서울노회(노회장 김창근 목사) 2015 전도대회가 24일(화) 오전 서울 자양교회(담임 이철규 목사)에서 국내선교부(부장 윤만길 목사) 주최로 350여명의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전도대회에서는 경건회, 정종국 목사(갈운교회)의 사회로 김대수 장로(상심리교회)의 기도 후 탈북여성 송신복 목사(성비전교회)가 '증인!(행 1:8)'을 제목으로 간증했다.

송 목사는 함경북도 청진시 청진고등농업전문대학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교사로 활동하다 1997년 7월 탈북해 1998년 6월 중국 삼자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으나, 2002년 6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려다 북송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2003년 5월 2차 탈북에 성공해 1년 만인 2004년 5월 한국에 입국, 총신대 신학과와 신대원을 졸업하고 4년 전 평택 비전동에서 교회를 개척해 오늘에 이르렀다.

송신복 목사는 "남북한이 갈라진 지 벌써 70년으로,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알아야 통일 후 시행착오와 갈등을 줄이고 살 수 있다"며 "이렇듯 남북한이 통일되어 한 나라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복음통일은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목사는 "우리는 현재 같은 민족이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는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북한에 남아있는 2천만 동포들을 구원해야 하지 않겠나"며 "사람으로써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북녘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땅에서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정체되어 있다고들 하지만,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등 부흥이 일어나려 하고 있다"며 "한국은 배가 부르지만 북한은 배고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했다.

송신복 목사는 "지난 70년간 압제 속에 살면서, 북한 사람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 기아와 고통에 허덕이고 있는지'를 알게 됐다"며 "북한 성도들은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악습을 끊어내고 다음 세대까지 이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그들의 믿음은 순교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송 목사는 "많은 이들이 '정말 북한에 교회가 있는가' 묻는데, 저도 그 질문을 이해한다. 저도 북한에 살 때는 그곳에 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하지만 제가 붙잡혀 북한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북한에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많고, 죽음으로써 예수님을 전하는 이들이 있으며,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한 이들에게 신앙이 있음'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북한 선교를 내가 시작했다'고 하셨다"고 강조했다.

특히 "탈북민들이 생겨나면서 폐쇄됐던 북한 사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북한을 복음화시켜 주실 텐데, 한국교회의 사명은 현재 3만명에 육박한 탈북민들을 잘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전했다.

송 목사는 "탈북민 약 3만명 중 40% 정도가 교회를 다니는데, 물론 그들 모두가 신실한 성도인 것은 아니지만 현재 탈북민 목회자가 20여명, 신학생이 100여명에 달한다"며 "한국교회가 탈북민 신학생들을 '준비되지 못했다'고 사역에 부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을 받아서 준비시켜 주는 것이 한국교회의 역할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송신복 목사는 "탈북민들이 개척한 교회를 기도와 물질로 도와 주시고, 직접 찾아가서 예배도 함께 드려 주시고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대형교회 목사님들께서는 남한 시스템에 익숙하지 못한 탈북민 목회자들의 멘토가 되어 주셔서, 일대일로 지도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는 "일부 성도님들은 결심을 잘하지만 조그마한 어려움만 닥쳐도 포기하고 떠나버리는데, 이런 상태로는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이 없다"며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간절한 열정을 가져야 하고, 좋은 곳에 살고 있다는 감사를 잊어선 안 된다"고 권면했다.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되는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송 목사는 "탈북민 아이들은 형편이 안 돼 학원에 보내기 어렵다는 호소가 있어,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탈북민 아이들 17명과 남한 아이들 15명을 가르치고 있다"며 "감당하기 힘들지만 탈북 아이들이 부모님들을 교회로 데려오고 있다. 저희 교회는 탈북민 절반 한국인 절반으로, '통일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탈북민 착한 성품 세우기 학교' 설립에 대한 꿈도 전했다. 그는 "한국은 법을 지켜야 살 수 있는 나라이지만, 북한은 법을 어겨야 사는 나라였기에 탈북민들이 굉장한 혼란을 느낀다"며 "북한에는 인격 교육이 없어 가정 파괴도 심각한 상황으로, 가정을 어떻게 세우고 함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교육해야 한다. 죽을 고비를 넘겨 좋은 나라에 왔지만 또다른 어려움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이들을 위한 사역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송신복 목사는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해 달라"며 "지난 70년간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 은혜로 북한이 변하고 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남한 교회를 희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앞선 경건회에서는 윤만길 국내선교부장(서후교회) 사회로 심문주 장로(동숭교회)의 기도와 김창근 노회장(무학교회)의 설교, 이철규 목사의 축도가 진행됐다. 간증 후에는 이기엽 목사(충무교회) 인도로 합심기도가 이어졌고, 이복길 장로(중곡동교회)가 광고를 전했다.

김창근 목사는 '행복한 전도자(신 10:12-19)'를 제목으로 "선교와 전도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나오는 것"이라며 "성도가 행복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사탄이 주는 것으로, 성도들은 하나님 만드신 온 세상을 누리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설교했다.

이대웅 기자

CBS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국민적 관심 커

8부작 특집 다큐, 신천지의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총회장 이만희)에 대한 우려와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한 기독교 방송이 제작한 신천지에 대한 폭로 프로그램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기독교방송' CBS는 16일(월) 8부작 특집다큐 '관찰보고서-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첫 방송을 내보며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방송 직후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오르며 국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이날 방송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관찰카메라에 담아 집중 조명했다.

CBS는 4일 특집 다큐 8부작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제작 발표회를 가진 바 있다. 이후 5분 분량의 방송 예고 영상을 SNS를 통해 공개했고, 이 사실은 확인한 신천지 측은 CBS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신천지 측은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문에 "CBS가 신천지를 사교집단이자 가출과 이혼, 가정파탄, 자살, 폭행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이라는 취지로 (CBS가) '신천지에 빠진사람들'을 제작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CBS의 제작물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결, 신천지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CBS는 16일 오후 첫 방송을 내보냈다.

이날 방송에는 신천지에 빠진 딸로 인해 가슴앓이하는 가족의 모습 등 피해사례들이 담겨졌다.

신천지에 빠진 딸에게 아빠가 "네가 신천지인이든 아니든 간에 우린 가족이잖아. 변함이 없어"라고 말하자, 딸은 엄마에게 "힘들어. 뭐 어떡하라고 나보고"라고 했고 급기야 "아줌마 나한테 이러지 마세요. 진짜"라고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딸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자 엄마는 "너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그랬어. 엄마 봐 봐"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 방송을 본 네티즌들은 "불쌍한 영혼들.....ㅉㅉ", "어머니에게 아줌마라고 할까", "언젠간 터질 줄 알았다", "들어가긴 쉬워도 나오기는 죽기만큼 힘든 곳이지 영혼까지 황폐화시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동윤 기자

"탈동성애자들과 그 가족들의 인권유린 사과해야"

선민네트워크 등, 탈동성애자들 인권 주장 기자회견

홀리라이프, 건사연, 선민네트워크 세 단체가 24일(화) 민변 앞에서 탈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생각하면서, 정작 탈동성애자들의 인권은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독교인들이 화가 났다. "탈동성애자들을 혐오집단으로 매도하여 소수자 인권유린 자행한 민변, 무지개행동,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규탄 기자회견이 24일 오후 2시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앞에서 열렸다.

홀리라이프와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선민네트워크 등 3개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통해 ▶민변 소수자위원회를 비롯한 친동성애단체들은 탈동성애자를 사기꾼으로 매도하고 탈동성애자들과 그 가족들의 인권을 유린한 혐오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사죄하라 ▶동성애자들보다 더 소수자인 탈동성애자들의 인권을 고의적으로 폄하 보도한 일부 진보언론들은 반성하라 ▶국가인권위회를 비롯한 국가기관들은 탈동성애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탈동성애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을 적극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윤근일 기자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

FDA IND임상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tax 3병 $249+tax 6병 $474+tax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하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인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인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인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WHO is he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유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PRO-Z 한국 50만병 판매 SALE 1병 $69+tax 3병 $179+tax 6병 $342+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